



한

제 39 호

벗

2017-2018

<표지> 한인의 열 (Spirit of Korea) 5-22-2018

Annenber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홈 페이지 : <http://kssnj.net>

발행일 : 2018년 8월

발행인 : 정안젤라

편집인 : 김원숙

Copyright © 2015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Contents

환영사	8
단단한 이들이여, 아름답게 빛나라	8
축사	9
차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인한글학교	9
전통문화교육의 선봉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10
전우철목사의 새버전 '라구요'	11
한국식 교육이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13
아내에게 죽지 않으려면	15
교사, 학부모, 학생의 글	17
시작이 반이다.	19
한국전통문화에서 찾는 한민족의 정체성 교육	21
"한국의 말, 문화, 역사, 그리고 자긍심"	27
보람있는 한 해를 다시 보내며	28
아웅~ 냥냥이들 이쁘구냥~	29
보석같은 글모음	31
어릴 때 배워야지요?	35
학생들에게 박수를!	36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38
봄을 맞이하며	40
가랑비에 옷 젖듯이	42
함께 성장하기	44
2018 KCC Children's Art Contest	46
우리 노래 우리 가락	48
교내 백일장 수상작	49
[중급 - 금상] 송수아 "가을" (5학년/코끼리반)	50
[중급 - 은상] 배승현 "가족" (8학년/돌고래반)	51

[중급 - 은상] 남유강 "가을" (10 학년/상어반).....	52
[중급 - 은상] 김세훈 "가을" (7 학년/상어반).....	53
[중급 - 동상] 신예린 "가을" (9 학년/돌고래반).....	54
[중급 - 동상] 김민진 "가족" (9 학년/돌고래반).....	55
[중급 - 동상] 이예나 "최고의 가족" (5 학년/코끼리반).....	56
[중급 - 동상] 이서연 "가족" (7 학년/사자반).....	57
[중급 - 동상] 심영서 "가을" (7 학년/사자반).....	58
[중급 - 동상] 이루리 "가을" (8 학년/돌고래반).....	59
[초급 - 금상] 강서연 "가을" (4 학년/코끼리반).....	60
[초급 - 은상] 임시아 "가을" (3 학년/강아지반).....	61
[초급 - 동상] 박지나 "가족" (4 학년/강아지반).....	61
2017-2018 대외 대회 수상 내역	6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말하기대회: 김희진 - 전국 대상.....	63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신지은 - 금상 "사랑이란?".....	65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배승현 - 동상 "사랑이란?".....	66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송수아 - 특별상 "사랑이란?".....	67
10/7/17 동중부협의회 한글날행사 - 백일장.....	68
I Love Korea Speech Contest: Erika Tsai - 금상 "I Love Korea".....	69
I Love Korea Speech Contest : 올리비아 노가이 - 은상 "What I Love about Korea".....	70
"나의 뿌리 찾기" 에세이: 김민진 - 장려상 "일주일을 모두 한국인으로 살게된 나".....	71
제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강서연 - 특별상.....	73
제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신호린 - 장려상.....	74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이루리 - 한산상/동상 3 "불패신화는 신화가 아닌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다!.....	75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함지훈 - 옥포상/동상 1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77
제 7 회 낙스/김구재단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윤도영 - 백범 평화상 "나의 숙제".....	79
제 3 회 낙스/김구재단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전: 이유정 - 백범 통일상 "Hello 김구 아저씨".....	81
동중부협의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서정환 - 금상 "열린 마음을 가진 따뜻한 정치인".....	82

동중부협의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윤도영 - 은상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식 요리사"	84
동중부협의회 동화구연 대회: 이예지 - 금상 "노래 잘 하는 악"	86
동중부협의회 동화구연 대회: 임시아 - 특별상 "무지개 물고기"	88
민주평통 도전 골든벨 한국 미주결선 참가 후기 - 함지우	89
10/14/17 다민족 전통 예술 경연대회 은상/동상	91
2/3/18 Asi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ompetition 대상/총영사상	91
2017-2018 자원봉사상	92
주요행사	93
9/2/17 교사 연수회 및 시상식	94
9/9/17 학부모 간담회	95
9/30/17 체험학습 - 취타대 / K-Pop Dance	96
9/30/17 Delaware Art Museum 추석대잔치 본교 모듬북팀 공연	97
10/7/17 Korean Parade in Manhattan NYC	98
10/14/17 모듬북 공연 (벽스카운티 한국학교 역사문화행사)	99
11/1/17 동계올림픽 선수단 출정식 초청공연	100
12/2/17 특강 - 정치참여의 중요성	101
Monthly Korean Culture Class	102
2/10/18 설날 행사	103
3/3/18 삼일절 행사	104
4/14/18 한국어 능력시험 26 명 참가	105
4/19/18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장원/부장원 배출	105
5/1/18 이사회	106
5/5/18 동요대회 - 동상/맑은소리상 수상	106
5/21/18 김덕수 사물놀이 워크샵	107
5/22/18 필라델피아국악축전 <한인의 얼> 주관	108
7/20/18 [낙스 학술대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및 교육안 공모전 시상식, 독서감상문쓰기 프로젝트 강의	109
보도자료	110

필라델피아국악축전 <한인의 얼>	116
오프닝 - 사물놀이	117
고조선 - 홍익인간 [삼고무].....	117
삼국시대 - 서동과 선화공주 [꽃바구니춤].....	117
고려 - 삼별초 항쟁 [검무]	118
조선 - 세종의 태평성대 [태평무].....	118
일제 강점기 - 불굴의 자주 독립 정신 [아리랑 생황연주].....	119
대한민국 - 기적 [부채춤].....	120
코리안 어메리칸 - 아름다운 나라 [꽃춤].....	121
오나라 & 고향의 봄 [합창].....	122
쑥대머리 & 배 띄워라	123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3 악장 '놀이'	123
새하늘 새땅	124

환영사

단단한 이들이여, 아름답게 빛나라



교장 정안젤라

몇 년 전 우리학교에는 태권도 시간에 선생님을 왜 따라 해야 하냐고, 자긴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해야 하는 한국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말하던 초등학교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역효과가 나는 것 같다며 한국학교 재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지난 해 한국문화 여름캠프에 등록했던 그 친구가 이제 신학기부터는 다시 한국학교를 다니겠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국이 나라를 잃고, 나라가 분단되는 슬픈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라며 문화 강국론을 말씀하셨던 백범 선생님의 통찰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한인의 열이 한국문화를 접했을 때 다시금 한국학교를 찾게되는 그 힘을 보았습니다.

한국학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에서부터 내려온 정신은 무엇인지, 변할 수 없는 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 주류사회에 진출했을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확립하는 정체성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지난 5 월에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 명인을 초청하여 필라델피아 국악축전 <한인의 열> 문화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커뮤니티와 함께 문화 예술의 중심지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유펜 에너버그 센터에서 아름다운 한국문화를 가장 보기좋은 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 공연은 허름한 곳에서 시끄럽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리 한인 2 세들이 가졌을 법도 했던 선입견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긍심을 단단하고 깊숙하게 심어주었습니다.

한국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단단해진 우리 학생들이 미국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주류 사회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학교를 신뢰하고 지켜보시며 후원해주시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차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인한글학교



김채영 영사 | 주뉴욕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뉴욕주재과)

제 39 호 한벗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 년간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학부모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즐겁고 기뻐던 기억들만 오래 간직하시길 바라며 다음 학기에도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는 이제 동포사회의 차세대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이 한글학교의 경험을 토대로 미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부 뉴저지통합한국학교는 남부뉴저지 한인사회의 성장과 함께 해 왔으며, 어느 학교보다 모범적인 학교 운영으로 많은 한글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한벗지에서도 지난 시간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학생여러분 모두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성장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안젤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남부 뉴저지통합한국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통문화교육의 선봉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심수목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장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전자 교지 '한벗'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지역에 많은 한국학교들이 있지만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는 남부 뉴저지 지역뿐만 아니라 동중부 지역에서 가장 모범되고 알차게 운영되는 한국학교 중 하나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는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멋진 성과를 보여 주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초청되는 인기있는 학교입니다. 우리 동중부지역협의회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가 지난 5월에 주최한 김덕수 사물놀이 패 초청 "한인의 얼" 공연에서 받은 감동과 충격은 지금도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개별학교에서 진행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필라 인근 한인 사회에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가 전통문화교육에 이토록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귀한 결실을 맺고 있는 데는 정 안젤라 교장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사들이 학부모님들과 한 마음으로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은 결코 한 순간에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뿌리교육, 정체성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남부 뉴저지 지역에서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온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진 학교입니다. 앞으로도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어 및 전통문화교육의 산실로써 든든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개교 40 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애쓰신 모든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남부 뉴저지 통합한국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우철목사의 새버전 '라구요'



뉴저지 열방교회 담임목사 전우철

요즘 나는 2002년부터 약 16년째 꾸준히 북한땅을 밟으면서 그토록 아버지께서 하고 싶어하시던 북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점점 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거리가 벌어지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7일 정기이사회 때 교장선생이신 안절라선생님께서 한국학교의 목적 곧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되는 메체로 '문화의 중요성'을 강의하실 때 참으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의 꿈은 단지 체리힐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중부지역의 한국학교로,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서 '남북연합'에 대한 역할을 문화적으로 접근하실 때 북한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그리워 하시던 아버지 생각에 뭉클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라구요' 노래를 만든 강산에씨랑 84학번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대학교, 아버지의 신분 등 공통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배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 만

첫째는, 저희 아버지나 강산에씨 아버지 모두 북한과 거제도랑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북청 출신인 강산에씨 아버지가 전쟁통에 처자식과 헤어져 거제도까지 흘러왔다가 지금의 어머니랑 결혼하여 강산에씨를 낳은 반면에... 저희

아버지 역시 북한군인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셨다가 잡히셔서 거제도포로수용소에 포로로 갇혔다가 결국 탈출하여 나의 어머니랑 결혼하였습니다.

둘째는, 나와 강산에씨 모두 경희대학교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강산에씨가 한의사가 되기 위하여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들어갔다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 결국 중단하고 가수로의 생을 살고 있다면... 나는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옷에 맞지 않은 철학자는 되지 못하고 그토록 아버지가 소원하던 목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닳은 점은 북한을 등지고 남한에 내려 오셔서 목사가 되어 북한땅에 한번 가서 맘껏 복음을 외치고 싶어하시던 나의 아버지나 '죽기전에 꼭 한번만이라도 북한땅에 가봤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하시던 강산에씨의 아버지의 소원이 절절합니다.

'고향 생각 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 (강산에씨의 '라구요' 노래가사중에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체리힐지역의 2 세아이들에게 한국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매개체로서의 '문화운동'을 뛰어넘어, 동중부지역의 모든 한국학교와 더 나아가 '미국과 한국' '남한과 북한'을 이어주는 '문화운동'으로까지 뻗어나가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합한국학교의 입양아반 선생으로 일하던 아들 '전겨레'와 함께 3 년전 북한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북한 지도위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에 놀라던 북한동포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전목사님, 어떻게 아드님이 이토록 조국의 언어를 까먹지 않도록 키우셨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모두 통합한국학교의 덕이라 생각하며 안젤라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교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겨레의 아들'로 키워주셔서"

한국식 교육이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체리힐 새행전교회 담임목사 최무림

한국식 교육이 기적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하면 전세계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맨하탄 북쪽에는 부끄럽게도 미국의 어둠의 그림자라 불리는 할렘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은 가난과 마약과 범죄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한국식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꿈을 주어 전에 한명도 대학을 가지 않던 할렘의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 100 퍼센트 대학 진학과 심지어 하버드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명문 학교가 되어 할렘의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이름은 Democracy Prep Public School 이고 창립교장 선생님은 쉘스 앤드류라는 분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국에 잠시 원어민 교사로 제직하면서 한국의 교육의 열풍이 오늘날의 풍요로운 한국을 만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그와 같은 열정을 할렘의 가정과 학생들에게 전하는 교육의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한국 선생님들을 투입하여 미국공립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장검사, 철저한 출석 체크, 고등학교 삼년 동안 의무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필수적으로 공부하게 하여 학점을 받아야 졸업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이들이 새로운 글과 문화를 익히는 가운데 자신이 꿈과 희망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하면 된다는 열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내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희망차게 공부하면서 전에 없는 할렘을 아름답게 변화 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렘을 변화 시키는 도구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사용된다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여간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얼을 받은 일세이고 이세 삼세입니다. 한국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문화를 알면서 세상을 넓게 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큰 꿈을 가진 할렘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남부뉴저지에는 한국인 이세 삼세들 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남부뉴저지 통합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한국어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없는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분명 지금의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신으로 미국과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 될 것을 믿습니다.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지역의 기적을 만드는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죽지 않으려면



여호수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만수

옛날에 결혼하면 첫날밤에 왕비를 죽여버리는 왕이 있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이번에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가 왕비 후보로 간택이 되었다. 가족들은 근심과 염려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기도 중에 딸을 불러 지혜를 주었다. “딸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1000 개를 준비하여 왕에게 들어가거라.”



그리하여 결혼한 딸은 첫날밤 왕과 침소에 들었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왕은 이야기가 재미있어 났을 잃었다. 그래서 신부를 죽일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다 다음 날 밤에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도 왕비의 이야기에 심취하여 왕비를 죽이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를 1000 일 왕은 왕비 죽이는 일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왕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나의 아내는 왕 만큼 무섭다. 화가 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나도 죽지 않으려 왕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항상 준비해 둔다.

이야기들은 주로 한국 전래동화들. 미국에 일찍 온 내 아내는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다. 아내가 화가 났거나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는 나는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녀는 나를 죽이려던 생각을 잊어버리고 “호호하하”하며 내 이야기를 듣느라 정신이 없다.

가끔씩 장거리 여행을 하면 아내와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한다. 아내가 운전할 때면 가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나를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 그러면 나는 또 이야기를 시작한다. 성경이야기나 동화, 소설 등을 각색해 가며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녀는 이야기에 빠져 신이 나서 운전한다.

아내에게 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만 하겠다. 옛날 아더왕이 전쟁 중에 야만인들에게 붙잡혔다. 충성스러운 로버트 기사는 왕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야만인들을 찾아갔다. 야만인 왕은 로버트에게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오면 아더왕을 풀어주겠다.” 하고 약속했다. 로버트는 돌아와서 중신들과 의논을 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 놓지 못했다. 그 때 이 소식을 접은 한 못생긴 처녀가 비짜루를 타고 왕궁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자기가 가르쳐 줄테니 로버트더러 아더왕이 풀려나고 나면 자기와 결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성스러운 로버트는 우선 왕을 구하기 위하여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었다. 로버트는 야만인들을 찾아가서 답을 하고 야만인들은 만족하고 아더왕을 풀어주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로버트는 못생긴 처녀와 결혼해야만 했다. 아더왕은 그 처녀를 불러 설득하여 로버트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처녀는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로버트와 결혼하겠다고 고집했다. 하는 수 없어 로버트는 그녀와 결혼을 했다. 첫 날 밤 로버트는 술에 취하여 신방으로 들어갔다. 로버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 때 그 못생긴 여자가 로버트더러 침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로버트는 싫었지만 그녀의 침실에 들어갔다. 로버트는 그녀를 바라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번에 자기를 꼭 안아달라고 했다. 하는 수 없는 로버트는 그녀가 시키는대로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했다.

다음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못생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여자로 변해 있었다.

순간 로버트는 행복해 졌다. 여자는 자기 말을 들어주면 예뻐진다.

나는 내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후 그녀는 점점 예뻐지더니 지금은 아주아주 예뻐졌다. 나도 로버트처럼 행복해 졌다.

성경말씀대로 우리는 사랑 하면 사랑 받고 사랑 받는 아내는 더욱 아름다워진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글

교사진

교사진	이름
교장	정안젤라
교감	김정숙
명예교장	김치경
교무	이유정
캥거루반	맹윤영
토끼반	신은숙
다람쥐반	권종현
햄스터반	강정량
고양이반	이유정
사슴반	한혜정
독수리반	강정량
코알라/종달새반	신은희
강아지/기린반	이종임
코끼리/사자반	배정숙
돌고래반	이재훈
상어반	한민경
미술	권종현
역사	구지현
음악	박유미
태권도	신동성
합창단	이진실
한국무용	하만순, 강은주*
K-Pop 댄스	줄리아*
단소/태평소	가민*
사물놀이	이춘승*

*강사

**보조교사: 함지우, 함두원, 한영주, 김명훈, 김진영, 김경민, 김주환, 김경민, 이의준, 박시원, 박주원, 박희원, 박유진, 박유빈, 신준용, 손성민, 양예원, 양우진, 유주환, 윤도영, 윤도웅,

시작이 반이다.



교감 김정숙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되는 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이 반이다.'

망설이는 사람에게 주저하기 않고 시작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시작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이다.
시간, 돈, 노력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만 질병과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잘 안다.
그러기에 내몸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조절
하기가 힘들게 인간 인가보다.

의료인으로서 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에 관련 자상하게 이런저런 교육을 시킨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 챙기는것은 늘 게으르기 짝이 없었다. 환자들에게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체중
유지하라고 입버릇 처럼 말하면서 나는 고작 하는 운동이라야 가족과
함께 가끔 골프치는 것이 나의 움직임 전부였다. 설상가상으로
형편상 잦은 외식과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왕성한 식욕때문에 나의
몸무게는 2-3 년 사이에 10Lbs 쯤 더 불면서 물오른 금붕어가 되어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차 혈덕거리는 것을 보니 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가끔 고혈압 환자들이 오피스 방문하는 날, 예상보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을 때가 있다. 오늘 약 드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역시나 대답은
오늘 아침 약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런 환자들에게 난
거침없이 욕박지른다. 그러시다가 큰일납니다. 약 잘 챙겨드시라고요
하며 당장이라도 큰 일이라도 날 것 처럼 호들갑 떨며 협박하고
호통친다. 그러나 정작 고혈압 환자인 나 자신은 어떠했던가 하루가
멀다하고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찌다 생각나면 먹는데 걸르는
날이 먹는 날 보다 더 많았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미 몇 년 전 부터 올라가서 약은 이미 복용한
상태였는데, 얼마 전 당 수치까지 올라간다는 심각한 경고장이
주치의로 부터 날아왔다.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몸무게 줄이겠습니까?"



'아님 약 을 드시겠습니까?'

예전에 환자 방문시에 어르신들 보면 하루에 약 10-15 알씩 드신다. 요일 별로 준비해 놓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구분해서 시간 되면 꺼내 들어 물 한모금에 약 하나씩 입에 털어 넣는 것을 보았다. 나도 나이들면 저렇게 될까 싶었는데, 내 약통의 약들도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으니 '사돈 남 말'하지 않았던가.

착한 울 서방님은 작년에 나를 위해 헬스크럽 회원권은 물론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 운동할 수 없다고 (PT) Personal Trainer 까지 친절히 붙여줬다. 사인만 해놓고 1 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던 회원권을 이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왔나보다.

누가 말했던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것' 이라고 운동 시작 후 몇 주간은 근육통에 온 몸은 쭈시고 아파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 마치고 땀 흘리고 나면 제법 기분이 상쾌해 진다. 망가지는 건강을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라만 보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 운동이 아니었던가. 열심히 살으리라 운동하면서 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시작이 반이다.'

이젠 어느정도 운동하는데 자신감도 생겼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단련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 약 까지 안 먹어도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약방에 감초처럼 살리라. 아프지 않고 열심히 외면당하지 않고 살으리라...



한국전통문화에서 찾는 한민족의 정체성 교육

엄종렬저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 유산”(2018)을 추천하면서



명예교장 김치경

전 세계 81 개국의 한글학교 교사 응답자 중 60%는 재외동포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외대 김재욱, 2014)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한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현재와 관련 짓는 정신적 행위이자 자기 성찰과정이다.” (김기봉, 한국학의 즐거움, 2011). 정체성 (Identity)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표준국어대사전) 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성격은 독립적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데 있다고 본다. 이 독립적 존재는 바로 우리가 찾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어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탐구하여 깨닫는 자랑스러운 주관적 성격으로 구성되는 성찰과정이라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하나의 가설이 있다면, 독립적 존재의 본질, 그 정체성은 최소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우리의 것으로 우리 자신의 주관적 경험, 우리의 전통 문화에서 나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독립적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뉴욕총영사관의 요청으로 군 복무 입대 연기를 신청한 한 대학원 학생과 면접을 했다. “미국 사람들에게서 ‘한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학생의 대답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것은 한민족 정신의 결핍이요, 역사 문화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비극이요, 한 마디로 정체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자인 나에게는 그 대답이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진실로, 한글, 한국어, 한국문화가 없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한글, 한국어, 한국 문화에 우리 민족의 열이 살아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아리랑 노래가 UNESCO 에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노래만 아니다. NJ 에서 거행한 “품앗이”이라는 한국 문화제에서도 우리 학교 한국 무용단은 부채춤을 추었다. 이 아름다운 한국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한 모습이 아닌가? 사물놀이, 판소리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인기 음식, 불고기와 김치도, 김밥과 떡볶이, 순대도, 한국 문화의 흥분 속에서 느끼게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다.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세가지 특징이 있는데,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자신의 고유문화를 간직한다.**” 이것은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이다.

가장 중요한 교육자들의 과제는 당연히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것이다.

마침내, 미주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 엄종렬화백이 한국학교를 위한 시청각 교재,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 (Korean Cultural Heritage: Coloring Book)”**을 다년간 연구끝에 재작 출판한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한국전통의상, 건축물, 보자기, 씨름, 호랑이, 한국도자기, 한국의 건축, 거북선, 첨성대, 석굴암, 에밀레종, 추석 성묘 등 [250 쪽] 다양한 한국문화의 소재를 선택, 칼라 사진과 흑백 라인그림을 함께 배치해 학생들이 그림에 색깔을 입히면서 한국문화에 접근감을 느끼도록,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문화 교육을 위한 반 편성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 한국어 시간에도 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쉽게 흥미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것이다.

한글(주시경 선생이 지은 이름), 한국어, 한국사와 한국문화는 우리 민족의 존재의 본질이요, 우리의 정체성의 원천(源泉)이다.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은 교육이다. 한민족의 정체성은 자랑스러운 한글, 우리말, 한민족사와 문화의 교육에서 발굴 육성되어야 한다!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비극을 되풀이 할 뿐이다.” (George Santayana, 미국의 시인, 역사철학자). 이 가르침은 우리 민족 정체성을 위한 교육의 **좌우명** (座右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의 문화가 없이는 형성될수가 없고, 문화가 말살되면, 그 민족의 역사는 한낱 역사의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민족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있는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우리자녀들이 한국민족의 정신유산을 발견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될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화 유산과 민족사를 물려 받을 수 있게 될것이다.

그림으로 배우는 한국문화유산 [엄종렬, 2018]는 역사 문화 교육의 난관에 부딪치고있는 우리 한국학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믿어 각 학교와 학부모들에 추천하고 싶다.

강의와 읽기, 그림을 보느것 만으로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방법은 이미 사멸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있다. 새로운 학습방법, 진실을 탐구하는 방법, 자기 자신이 만들어 그려내는, 그러면서 한국의 미를 스스로 체험하는 경험을 원한다. 자기 손으로 색칠하면서 그림을 완성하는 가운데 한국문화의 미를 발굴하게 도와주자.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도록하자.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가르치자!

김치경, 교육학 박사

1979~2016,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교장 16 년간, 현재 명예교장/부이사장

2001~2009, 매인 주립대학교 교육방법론/교육과정이론 교수

1969~2001, 체리힐 고등학교 이스트 과학 교사/과장

Korean Identity Education Through Korean Traditional Culture Recommending Korean Cultural Heritage : Coloring Book(2017) by Chong Yull Um

According to a survey of Korean school teachers from 81 countries, 60% responded that the main reason for learning Hangeul is to find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1] Now then, do our Korean teachers understand what Korean identity is?

Identity consists of the intellectual act of making a connection between one's principal human agent and his/her present and past, as well as the process of examining one's self-introspection. [2]

Identity is discovering one's unchanging existence or its nature of possessing independent existence. [3] Central to this concept is perception of independent existence because the independent existence is the identity we are searching for. However, this identity is not reciting a part of historical facts in the textbooks, but is gained through a subjective process of making inquiry and self-examination. It is a process of self-discovery and introspection.

One premise I propose is that true independent existence or identity shall be at least ours that originates from self-experience and is developed from our own traditional culture

which we are proud of. It is because at the foundation of independent identity is the notion that our history, including its culture itself, is by nature independent existence.

One day, upon the request of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Office in New York, I had a chance to interview a graduate Korean student who needed to fulfill military duty in Korea but wanted to apply for an extension of the military service requirement. The permission for an extension partially depended on the interview.

I asked, "If you get a question from an American audience 'what about Korea makes you proud?', what would you say?"

"There is nothing about Korea that I am proud of!" replied this graduate school student, without any hesitation.

I was shocked but I controlled myself and calmly said, "Maybe you were caught by an unexpected question. Why don't you step out of the room for 10 minutes to think about my question and come back? We can then talk about the same topic again."

Why wasn't there anything to be proud of about his mother land, his people and his culture?

It was because of an obvious absence of national pride and spirit! It was tragedy that came from the absence of educational history! Why, in other words, didn't he have national identity? It sadly pounded my heart, the heart of an educator!

Can Korean people truly live on without Hangeul, Korean language, and their culture? No!

Thus, are Korean's spiritual power and its identity living in Hangeul,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Yes. I believe this is true!

Airang was selected and recorded by the UNESCO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ll over the world, our culture, showing its artistic beauty, is being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 At the Pulmashi Festival in New Jersey, our Korean school students performed Korean dances. To me this event was a living display of Korean heritage and identity. Samulnori and Pansori were our identity. Kimchi and five color vegetables, barbecued short rib and Bulgogi, Gymbab and Dukkoboggi, and Sundae - they all are our identity. We have a lot to proudly show because they are all our identity!

Once Arnold Toynbee [4] told us, "The race which rules the world has had three distinctive national characters: hard-working, strong responsibility, and preservation of its own culture." Thus, for a meaningful Korean study, the most essential educational task of our educators is to find the method of teaching our own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This cultural sketchbook includes Korean traditional dresses, building structures, ceramics, Korean tiger, cloth handbag, the Turtle Ship, Cheomseongdae observatory, Seokguram Grotto, Emille Bell, ssireum wrestling, Chuseok (Korean Thanksgiving), etc. 250 Korean arts are presented in color, matching with B&W line drawings so that

students can color each sketch and visually experience the Korean culture. It is not necessary to form a special art class, but any leisure time can effectively be utilized.

Finally, after many years of study, Chong Yull Um, an artist and writer, has publishing a visual-experiential educational sketchbook, **Korean Cultural Heritage: Coloring Book**, (2017). [5] I wholeheartedly recommend “Learning Korean Culture Through Art” by Mr. Um to every Korean school and every Korean family, for I believe this approach to teaching culture is an exciting way of helping our young students visually experience our own culture in the most meaningful way. Students can explore and discover Korean culture and experience its richness and beauty by coloring the sketches. This would be a natural way of com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Korean identity and growing to become our next generation to make our culture blossom all over the world!

I wish to express my deepest appreciation for Mr. Um and his dedication to the Korean study by publishing **Korean Cultural Heritage: Sketchbook**, (2018). [6] I also applaud schools and parents who will use this fun-filled coloring books for the purpose of inheriting our culture, that is Korean!

Let’s teach our beautiful Korean culture!

Profile: Chi Kyong Kim, Educator, Ed.D.

- 2001~2009, University of Maine at Machias, Curriculum Theory and Educational Methods
- 1969~2001, Teacher and Chair of Science Department, Cherry Hill High School East, New Jersey
- 1993, Temple University, Ed.D. in Curriculum Theory
- 1973, Rowan University, MS in Educational Supervision
- 1961, Korea University, BS in Physics
- 1979~2015, Principal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for 16 years
- 2017~Present, Honorary Principal/Vice Director of the Korean School of Southern New Jersey

References

- [1] Jae Wook Kim, 2014.
- [2] Ki Bong Kim, Pleasure of Korean Study, 2011.
- [3] Standard Korean Dictionary
- [4] English Historian and Philosopher, 1889~1975.
- [5, 6] Korean Cultural Heritage: Coloring Sketchbook 2018.

“한국의 말, 문화, 역사, 그리고 자긍심”



한인숙 (코알라반 신동은 학생 어머니)

한국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건 3년 반 전이었습니다. 큰 아이 동은이가 5살, 작은 아이 승은이가 1살을 막 지났을 때였지요. 큰 아이는 한국에서 유치원을 잠깐 다니다 와서 한글을 대충 읽고 쓸 수 있었고, 승은이는 아직 어려서 특별히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고 2년을 흘려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었지만, 동은이가 남들 앞에서 유난히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미국 학교에서 늘 조용하기만 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2년 간을 그렇게 관찰만 하다 한국 친구들도 사귀게 해주고 한글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 작년부터 한국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학교에서의 동은이는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또래 아이들보다 한글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겠지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한국 학교가 마치 한국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를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대답을 한 건 미국에 온 3년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그런 경험이 점점 아이에게는 자신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젠 미국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도 하게 되었고, 방과 후 활동도 늘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에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는 것 못지않게,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미국에 함께 모여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만으로도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한국의 뿌리를 아이들이 찾아가는 과정이 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역사 시간을 특히 좋아하는 동은이, 아직은 어리지만 꼼꼼히 글자 하나하나 따라서 써 내려가는 승은이, 그리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모르는 저에게도 너무 공손하게 머리 숙여 인사하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또, 그 뿌듯함 뒤에 늘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람있는 한 해를 다시 보내며



코알라/종달새 교사 신은희

지난 몇년동안 1학년만 지도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3,4학년인 코알라, 종달새반을 지도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1학년때 저희반에서 가르쳤던 거의 모든학생들이 코알라, 종달새반으로 왔기때문에 학생들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 듯했고 모두가 즐겁게 수업에 임하였던거 같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학습하였으며, 그날배웠던 챕터는 숙제로 첨부된 독해및 어휘문제중심으로

복습하는 과정의 문제중심이었고 열심히 숙제를 모두 완벽하게 잘 제출해주었습니다.

몇년전 1학년때보았던 어렸던 모습의 우리 학생들은 어느덧 의젓하고 조용히, 또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아는듯했고, 1년동안 순조롭게 잘 따라와준 우리 코알라, 종달새반

학생들 모두 수고많았습니다. 더불어, 주말아침마다 라이드 하시느라 애쓰신 학부모님들께도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학동안에도 학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방학을 잘 보내시길바랍니다.

또, 새학기에 밝은모습으로 우리학생들 다시만나길 기대하며, 코알라/종달새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코알라/종달새반 우리 학생들, 사랑합니다!

아웅~ 냥냥이들 이쁘구냥~



고양이반 교사 이유정



일년간 고양이반을 맡으면서 느낀점은 단 한가지. 떠드나, 안떠드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안하나 우리 이쁜 냥이들이구냥~ 하는 느낌! 한국어를 못하는 냥이들~ 냐옹 냐옹 하다가 어느새 가나다라마바사냥 하면서 한글을 읽어대는 아이들이 마냥 신기하다.

우리 고양이반 아이들의 일년간의 모습은 이렇다.

- 싫으나 좋으나 글을 쓰라하면 투덜거리면서 쓰는 아이들,
- 숨은 그림을 찾으라고 하면 오~예 하면서 신나게 찾다가 한글로 다 외우라는 말에 식겁한 아이들.
- 영어문장을 주며 한글로 고치라고 하니 울상이 되는 아이들과, 공부 좀 해왔다가 당당하게 쓰는 아이들.
- 누가 더 어려운 문장을 빨리 읽나 시험을 하니 다들 뒤돌아서서 열심히 문장을 읽으며 연습을 하는 아이들.
- 역사공부를 하자 하니 역사는 뒷전이고 부록으로 들어 있는 만들기에 더 집중하는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하며 나도 어느새 인내와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한치나 더 자라 있었다.

아이들은 스승의 스승.

[고양이반 아이들]

장갑이라는 한글을 배우며 손을 모아 장갑에 손을 넣으니 따뜻하냥
몇 주 쉬다가 만나니 더 반갑다냥
선생님이 매주 내는 시험문제, 다음주 시험 문제가 궁금하냥

한글을 쓰랬더니 그림을 그리냥
간식을 가져오니 아이들의 먹는 소리는 냥냥
가끔 실수 하는 선생님의 실수로 웃는 냥이들, 재밌다냥
이제 학기를 끝내면서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냥이들이 되기를~



보석같은 글모음



사자/코끼리반 교사 배정숙

코끼리반 이예나

안창호

(1878년 11월 9일 ~ 1938년 3월 10일)

평안남도 강서군 출신이다.

구한말 만민공동회에서 강연을 하였으며, 배워서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영향력이 강대해지자 미국으로 망명, 이후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였으며

1919년 상항이에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자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활동했다.

웅변술에 뛰어났으며, 연설과 웅변에 두루 능통하였다.

여러 청년들을 감화시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했다.

흥사단, 대한인국민회등 재미한인단체를 조직, 주관하였고,

1919년 4월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차며 주동하였다.

1932년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폭탄투척사건 이후 일본제국 영사관 경찰의 불심검문에

체포되어 송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형문을 받았고, 고문 후유증으로 경성제국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소화불량과 간경화, 폐질환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합병증으로 출옥 직후 사망한다.

사자반 강민희

안창호

안창호가 한국사람들을 위해서 나라를 여행했던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지키라고 말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라고 말했다.

1902 년에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도 가르쳐줬다.

안창호 선생님은 계속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행을 했다.

일본한테 체포됐어도 계속 포기를 안했다.

안창호 선생이 60 나이로 속상하게 돌아가셨다.

그래도 한국이 안창호를 기억할거다.

코끼리반 강성유

가 을

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입니다. 왜요? 바로 알려지 때문입니다. 매일 약을 먹고 하루종일 기침,

눈물 와 재채기를 자주합니다. 꽃에서 나온 꽃가루 때문에 이런 조짐이 나옵니다.

봄은 아름다운게 참 많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꽃이다칩니다. 밖에서 많은것을 할수도있습니다.

자전거, 바베큐, 와 산책 으로 시간을 잘 보낼수있습니다.

봄에서 제일좋와하는것은 바로 자전거 타기 입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게 참 좋아합니다.

여름은 봄과 차이가별로없습니다. 날씨는 덥고 다양한 활동을 할수가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할수있고, 바닷가에 시간을 보낼수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참 귀찬한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기예요. 간질고 또 간질면서 아프고 싫어요. 뜨거운 날씨와 강한 햇빛이 가끔씩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모자를 자주 습니다. 저는 집 마당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방학동안 수영을 자주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예요. 친구글과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보낼수있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가을을 생각을하면 학교가 먼저 떠올라요. 그러나 좋은것들도많아요.
하나는 날씨가 더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운날씨가 싫고 추운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은 여름 과 겨울 중간에 있습니다. 이계절에는 낙엽이 내려오는 계절이에요.
사진을 찍는 배경이 가을에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것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눈이올때 눈사람도 만들수있고 맛이있는것을 먹을수있고.
추운밤에 따뜻한 핫 초코를 마시면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눈이많이 오는날에는 학교를 안 갈수있어서 좋와요.
겨울에는 휴일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나무 를 장식하고 가족과 방학동안 시간을 많이보내요.
새해도 축하하면서 파티도 합니다. 이 것들 때문에 겨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사자반 심영서
가을

가을,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뭇잎은 색깔이 변합니다.
물론,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축축해져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은 저에게 완벽한 계절입니다.
가을은 저한테 참 예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비가 오면 어린아이들이 비속에서 놀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소리지르고 웃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좋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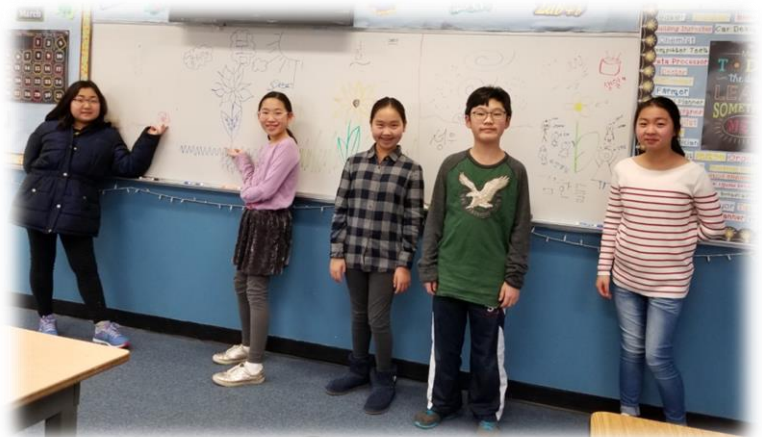
밖에 있는 예쁜 낙엽들을 보면, 예전에 같이 즐겁게 놀았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이런 가을은 아름답지만 친구가 그리워져서 슬프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슬슬 겨울이 오는게 느껴집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날은 점점 추워지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있을때 가을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어릴 때 배워야지요?



강아지반 / 기린반 교사 이종임

한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다 보니 일상의 사사로운 일들이 학생들의 배움과 연결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한낮의 무더위가 백도를 치닫는 오늘은 햄버거로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 아들과 함께 들른 맥도날드에서 한글학교 어린이들을 떠올린다.

일 년 만에 들러보는 집 근처 맥도날드의 잘 정리된 조경과 내부의 변신에 기분이 상큼해 지면서 아들과 함께 주문하는 줄에 서 있었다. 아들은 주문을 하고 나는 돈을 내기 위해서.

“무슨 소스를 하겠어요?”

치킨너깃을 위한 소스를 묻는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아서 아들은 부모와 본인의 기호 소스를 대답하고 있었다.

“tangy honey mustard, sweat and sour sauce...”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소스가 있고, 각각은 무슨 맛일까 생각하면서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음식을 위한 소스라면 엄마인 내가 더 친근한 분야인데... 나도 이 땅에서 아들만큼 오래 살았는데... 나에게는 이 상황조차도 왜 어설픈까? 사실, 많은 공공장소에서 있어온 상황이다. 하지만, 부인하지 말자. 내가 어찌 어려서부터 언어와 문화를 몸으로 익히고 다져진 세대에 비교하려 하는가? 내가 머리로 이해하며 익히는 이 땅의 언어는 습득함과 동시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기 바쁘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이 땅의 문화는 나도 모르는 동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나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이라고 슬퍼하지만, 일반적인 사실 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한글 학교의 학생들은 최소한 토요일 하루는 한글학교 생활에 몸담고 있다. 닳새를 보내는 정규학교에 비하면 작은 비율의 생활이지만, 한글학교에서 머리로 이해함과 동시에 몸으로 한글과 한국문화를 익힌다. 또한, 많은 경우 한글학교의 배움과 경험이 가정으로 이어져 그 익힘에 배가의 결실을 가져온다. 우리 한글학교의 학생들은 무궁무진한 흡수 능력의 어린 세대들이다. 스펀지같은 그들의 흡수 능력에 동력을 달아주자!

우리 학생들이 멀지 않아 겪을 수도 있는 한국에서의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본다.

“어떤 걸절이 소스로 주문하시겠어요?”

“새콤달콤한 간장소스에 야간의 고춧가루로 주세요!”

학생들에게 박수를!



햄스터/독수리반 교사 강정랑

2년 연속 한글기초 3 햄스터반 친구들과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올 해는 받침있는 글자를 포함해서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쉬운 한국어 문장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단어공부와 쉬운 단어를 중점으로 받아쓰기에 도전하면서 읽기와 쓰기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하였기에 처음 받아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받아쓰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처음에는 한글 자음, 모음의 발음기호를 참조하면서, 칠판에 같은 자음글자를 여러개 적어놓고(예 : ㄱ ㄱ ㄱ ㄱ ㄱ) 각 자음에 모음을 붙이면서(예 : 거 그 구 규 교) 소리나는 각 낱자를 만들어 보이니 아이들이 금새 원리를 알아 스스로 소리나는 단어를 완성하였습니다. 우선 햄스터 반 친구들은 실력이 비슷하여 그 주에 배우는 내용들을 거의 똑같이 이해를 했고, 가르칠 때 집중력이 있었어 학생들이 자신감이 많이 찬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 학생들이 읽기를 완성하였고, 쉬운단어들을 받아쓸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 간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집에서 간단한 한국어 동화책을 읽는다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입니다.

독수리반	초급	2
친구들은	워낙	기초가
튼튼해서	이번	한국어
수업이	힘들지	않고 재미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착각일까요?		똑똑한
독수리반	친구들이지만	
우리반을	모범적으로	이끈
두명의	여학생을(여학생이	



제

예쁜
두명

[illegible]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토끼반 교사 신은숙

선생님! 주저함 없이 와서 와락 안기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이쁜 유아반 아이들. 초기의 수줍고 무서워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엄마의 옷깃을 꼭 잡고 못 놓는 안타까움이 그리고 자리에 앉고서도 뒤를 보며 아빠를 시선에서 못 놓던 그 여린 몸 짓이 이젠 제법 의젓하게 앉아서 친구들과 자기들이 재미 있게 가봤던 레고랜드 자랑에 신이나 보인다.

아아어어~를 시작으로 자음을 배우고 글자를 형성하는걸 배워나가는 동안 우리 토끼반 아이들의 마음의 크기도 커진 걸까?

여러분, 일주일 잘 보냈어요? 를 시작으로 동화책 읽기를 하고 숫자노래, 월별 노래, 일주일 노래, 모음노래, 자음 노래 등의 노래도 하고 모음과 자음 익히기도 하면 어느새 우리아이들이 선생님, 배고파요 라는 소리를 한다. 그럼 한글이 야호 비디오를 보며 스낵 타임을 갖는다. 이젠 장난감 가지고 노는 시간! 오 분간의 놀이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 다음 특별 활동 시간.음악 시간, 미술 시간, 태권도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음악시간! 우리 토끼반 아이들에게는 율동시간이다. 곰 세마리 노래도 우리 아이들에겐 엄마 아빠를 회상하는 시간이다. 엄마곰은 똥똥해~ 하곤 킥킥킥..아빠 곰은 날씬해~ 그리고 킥킥킥, 이젠 제법 노래를 개사하는 실력자가 됐다. 모두 우르르 나가 춤추며 노래하는 씩씩한 장난꾸러기들.



미술시간!

어쩌면 이런 색감이 나올까.. 우리 아이들은 색감의 천재들이다.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자동차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영감의
 천재들이다
 뽀툼 뽀툼 무언가를 만들고선 새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훌륭한 아티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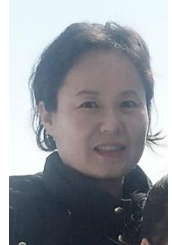
태권도 시간!
 선생님~ 이것 봐봐요. 얏 하고 발을 번쩍 올리고 자긴 그만큼이나
 올라갔다고 자랑. 부끄럽고 하기 싫다 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젠 잘한다.
 제법 앞구르기, 옆으로 차기, 자기방어등을 배우는 데 역시
 씩씩하고 놀랍게 잘한다. 암~ 운동은 일찍부터 시켜야 해 라는
 흐뭇함을 선사해준다.



한해 동안 아직은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든 두살 반 엘라와 색칠 공주 윤아가 나중엔 한글자 한글자 글씨를
 써내려 가는 모습은 기쁨이었다. 씩씩하고 우렁찬 목소리를 자랑하듯 잘 따라 하는 동우와 태현이, 쉬는
 시간 이면 엄마를 그리워 하며 눈물 짓던 나래, 한국어가 서툴지만 서~언 쌤님 하며 한국말로 열심히
 물어보고 자랑도 하던 셀라, 이름 처럼 현명했던 공주 현명이, 부끄럼쟁이 연우와 헨리, 똘똘이 예반, 태권
 소년 하준이, 늦게 들어왔지만 잘 따라왔던 새현이와 연재. 한명 한명 나열 하자면 끝도 없이 귀엽고
 자랑스럽고 예쁜 우리 토끼반 아이들.

정말 즐거웠던 한해여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다음 학기에도 부쩍
 마음도 몸도 커져서 나타날 우리 아이들을 기대해본다.

봄을 맞이하며



사슴반 교사 한혜정

유난히 혹독 했던 이 겨울이 지나고 과연 봄이 이 지독한 추위를 뚫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 올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을 했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어느새 봄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다. 사방으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에는 어린 새 잎들이 파릇파릇 자라 나고 있는걸 보면...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 줄려고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봄은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은 곳에서 부터 서서히 우리에게 오고 있었던 것 같다.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아니 내 윗 세대만 해도 24 절기 중 첫날인 입춘에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라는 뜻인 “입춘대길” 이라는 사자성어를 직접 먹을 갈아 붓으로 크게 써서 한옥에 붙여 놓는 전통이 있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곳곳에 그 글을 붙여 보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 봄에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우리 선인들은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설날에 덕담을 주고 받으며 인사를 나누는 것도, 먼길을 가는 사람 에게나 시험을 치르러 가는 사람 에게는 험한 말을 삼갔고, 특히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모두 듣고 느낀다 하여 좋은 생각과 좋은 말만을 하였다. 자기가 한 말이 씨가 되어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 봄을 맞이 하며 입춘대길을 마음 속에 새겨 보려고 한다. 입춘대길을 마음에 한자 한자 쓰면서 말의 신비함을 믿었던 선인들의 넉넉한 마음을 이어 받으려 한다. 내가 가르치는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나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빌어 보려 한다. 지금은 마치 추운 겨울의 얼어 붙은 땅과 같아 보여도 봄이 우리에게 갑작 스럽게 따뜻함과 예쁜 세상을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한국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이 순간 순간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꽃을 피우기 위한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봄을 맞이 하려 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역사문화반 교사 구지현

Korean-American 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를 외국어 배우듯이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학교를 찾는다. 자의로 가고 싶어하는 대견한 아이들도 있겠으나 대부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늦잠 자고 싶은 시간에 가방 하나 둘러메고 등교를 한다. 나 또한 아이 셋을 두드려 깨워서 내가 밥을 먹는다는건 진작에 포기하고 학교 가는 차에서 아침을 해결하도록 샌드위치를 챙기고 아이들 수업준비 가방을 부랴부랴 싣고 1 시간 거리를 달린다. 한글도 서툰 아이들에게 역사문화를 가르치는게 쉬울리가 없다.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 날밤을 새워가며 신나게 준비했다. 아이들 앞에 내가 싸짐어 온 보따리를 풀어서 보여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벅찼다. 첫날 내 의욕과는 달리 처음 보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생소한 단어들... 겨우 읽어내긴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고..눈만 꿈뻑 하는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특수한 환경이 나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찾고 어려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다. 1 주 2 주가 지나면서 꿈쩍도 하지 않을것 같은 아이들의 태도가 변화하는게 보였다. 이 선생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알려주고 싶은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1 년 동안 완주한 아이들과 비교한다면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내가 전하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사진 하나를 본 아이와 안본 아이들이 같은 수가 없지 않는가?



말라서 짹짹 갈라진 땅에 도저히 물이 스며들것 같지 않을것 같아도 가랑비는 소나기를 받아줄 마중물처럼 촉촉히 스며들게 한다. 내 수업이 흠뻑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니라도 가랑비가 되리라는 건 확실한다. 언젠가는 나도 소나기가 되고 아이들도 이 소나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온전히 흡수할 땅이 되기를 희망한다.



함께 성장하기



캥거루반 교사 맹윤영

컨설턴트로 일하던 한참 바쁘고 더웠던 지난 9월 뭔가 좀더 의미있고 가치있는 일에 동참하고자 한국학교 입학아반 선생님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만큼 지식이 없어



부족했지만 그나마 해병대 시절 장교로 복무하며 교관생활을 해보고, 대학교 태권도 총 사범을하며 학생들을 지도해왔던 경험에 용기를내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빠져들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령과 수준이 제각기 달랐습니다. 교재나 교안이 없어 바쁜 업무를 끝내고 매주 금요일 늦은 저녁까지 공부해가며 교안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했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함께 교감을 하다보니 매주 토요일이 그리워 졌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정말 의미있는 일이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한국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과 자음, 모음 부터, 숫자, 단어 등 많은 내용을 배웠고 문화시간에는 인사법, 화폐, 태권도, 취타대, 한국전쟁,



요리특강, 한국음식, 가족관계, 한국군대, 설날, 국악, 서예, 종이접기등 많은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완벽히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운 내용도 있었고 3 시간이라는 수업이 건디기 힘들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기억속에 작게나마 기억되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으로 간직되리라 믿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을 달래고 설득하려 수업중에 공을 차려 나가기도하고 수업을 일찍 끝내보기도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snack 을 준비해보기도하고 game 을 하면서 엉덩이도 맞아주고... 지난 1 년은 참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끊임 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부족한 수업내용에도 아낌없는 격려를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수업 내용과 교안은 한국학교 캥거루반 게시판에서 (<http://kssnj.net/kangaroo>) 열람/조회/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저희반 수업 내용을 담은 영상과 (class video: https://youtu.be/H_Pk6on_Wq0) 사진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안 믿고 맡겨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018 KCC Children's Art Contest



미술 교사 권중현

내가 동화속 주인공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북부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해있는 코리아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미술대회에서 우리학교 재학생 3 명이 특별상과 2nd 어너상을 받았습니다. 모두 축하해주세요~~

<특별상> 임시아 -3 학년

이 그림은 내가(라푼젤) 하늘에 있는 등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의 꿈이 13 살 생일 때 꼭 등불을 바라 보고 싶으니까요. 라푼젤에 특징인 긴 머리카락을 특별히 보여주고 싶어서 노란 털실로 붙여 보았습니다. 라푼젤이 나중에 성에서 탈출 했을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꽃도 부치고 밝은 색을 사용해서 라푼젤의 꿈도 이루고 행복한 세상을 라푼젤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특별상> 전윤아 (1학년)

내가 만약 동화책 주인공이라면 나는 <이야기 주머니> 의 용감한 하인이 되어 무서운 뱀을 때려잡아 신랑을 구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잘살수있어요



<2nd honor> 강지원-2학년

I want to be a Belle as a fairy tale character. She was very sweet to be nice to Beast even though he looked ugly and scary. So I want to become a nice girl to everyone.



우리 노래 우리 가락



합창반 교사 이진실

6.25.2017 뉴욕국악축전

8.15.2017 한인회 광복절 행사

9.23.2017 추석 대잔치

11.11.2017 양로원 방문

12.16.2017 한인회 크리스마스

2.10.2018 상록회 설날

3.3.2018 삼일절 행사

5 13. 2018 양로원 방문

5.19-20.2018 국악축전(뉴욕)

5.22.2018 국악축전(필라)



교내 백일장 수상작

[중급 - 금상] 송수아 "가을" (5 학년/코끼리반)

송~~~~ 살살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불었어요.
가을 산책을 시작하자 벌써 안왔는데 벌써
부여 정말 예쁜것을 많이 봤어요. 다람쥐들을
겨울 준비 하려고 도토리들 주고있어요. 철새들은
너 따듯 한곳으로 이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산책에 뭐를 할지 기대가 있어요.

걸어가면서 보는거 마다 "와~ 예쁘다"
그랬죠. 나무들의 나무잎이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알록달록 알록달록 제눈에게
꿈 같았어요. 얼른 꿈에서 나오고 계속 걸어갔어요.
푸른 하늘 위에서 철새들이 꾸엑 꾸엑하면서
우리는 간다 안녕!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웃어요. 것는데 마다 다람쥐들이
허겁지겁 뛰어 다녔어요. 날씨는 살살해졌고 조금 있
집에 가자 생각 했어요. 조금 더 빨리 걷기 시작
하고 기분이 좋았죠. 호수도 있고, 파라도 있고. 벌레
가 아예 없어 잔아요! 저는

30분후 집에도착 했어요. 도토리도 가져왔어요.
이 가을 산책을 기억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그때 까지 잘있어 가을아!!
안녕!

심사평: '가을'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가을'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언급이 대부분인 다른 글들 중에서 눈에 띈다. 가을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가을날의 산책에 대한 구체적,개인적 체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 산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기억)을 잘 복구해 서술했다는 점이 객관적 사실(제목)인 가을을 자신의 체험으로 잘 표현했다. 송~~ 하고 표기한 바람 소리, '꾸엑, 꾸엑'이라고 표기한 새들의 음성 등의 의성어까지 넣어 그 날의 풍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꿈 같이 아름다운 나뭇잎 색깔에 취한 상황에서 뛰어나와 산책을 계속했다는 표현도 좋다. (강남옥 작가)

[중급 - 은상] 배승현 "가족" (8 학년/돌고래반)

저는 제 가족과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많이 안 가지만 그래도 사이가
좋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 엄마하고 많이 친합니다. 가끔 저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저는 맨날 우리 가족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는걸 알고, 가족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은 제가 미안하다는걸 알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그런 제 가족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합니다. 저한테 언제나 도움을 주는 제 가족을 존경합니다. 이다음에 저서 저의
부모님처럼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아름에서 일하십니다. 저의 엄마는 네일가게에서 일하십니다.
제 부모님은 돈을 많이 못벌지만,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게 일하신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저를 뒷바라지 하거나 성신이 없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심사평: 굉장히 단정하고 정확한 글이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단정하고 정확한 글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강남옥 작가)

[중급 - 은상] 남유강 "가을" (10 학년/상어반)

가을은 너개의 계절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에서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에서는~~ 과일과
사과가 제일 많이 추수되고, 채소는 호박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그
호박은 Halloween 때 씁니다. 제 생일은 9월 5일에 있어서 가을 더 좋아합니다.
가을에서는 또 낙엽이 예쁘게 떨어집니다. 빨간, 노란, 주황색, 고-
콜색 낙엽이 예쁘게 ~~바닥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많은 낙엽을
모아서 뛰어듭니다. 가을에는 많이 호박-맛난 음식이 많습니다. 가을에서는
Starbucks에서 Pumpkin-spice Latte를 팝니다. 당풍이 지국에 배경을 책갈피
많은 낙엽으로 decorates. 근처에 가족이 만나서 같이 밥먹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에 Halloween도 있어서 애들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탕과 ~~관~~ 과자를 팔
모읍니다. 많은 새로운 TV Show가 나오니까, 10월 10일에는 Flash가 또 나옵니다.
공기도 돼게 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시원하면서 살짝 쌀쌀합니다. 더 좋은 것은
많은 가을부터 뜨거운 스노우타터를 입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쌀도 많이 만나고
모기도 많이 입습니다. 여자들은 많이 또대 부드러운 신발을 씁니다. 가을은 얼음 커피도
다시 따뜻하게 마십니다. 가을에서 다시 하키도 시작하고 NFL과 NBA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팬들이 다시 옵니다. 가을에서는 많은 재미와 가족 시간이
있습니다.

심사평: 가을에 일어나는 생활 언저리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특징적이다. 단정한 글이다. (강남옥 작가)

[중급 - 은상] 김세훈 "가을" (7 학년/상어반)

계절들에서 나는 가을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날씨도 좋고 밖에 보면 나무에 있는 나무들이 다 노란 색깔이랑
빨간 색깔로 변화되니까 보기가 좋다. 가을은 좋은 점이 많이 있다.
가을이 추수 수확물들이 과일과 곡식들이 더 많이 있고 더 맛있는 것
이다. 사과, 배, 감, 포도, 등등 많이 맛있다. 배는 시원하고 맛있고
감의 맛이면 감도 많이 맛있다. 가을에도 쌀, 콩, 등등도 많이 있고
맛있다. 과일과 곡식들이 다 가을에 신선하다. 가을에는 날씨가 딱
좋다.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고 시원하고 중간에 있다.
가을에 휴일과 축제들이 많이 있다. Labor Day, Columbus Day,
Halloween, Veterans Day 랑 Thanksgiving들이 다 가을에 있는
휴일/축제들이다. 어떤 날들은 재미있고 다른 날들은 중요하고 거의 모든 휴일에
학교가 안가니까 좋다.
저는 이번 가을을 정말 좋아한다. 과일을 많이 먹고 그리고 밖에서
좋은 날씨를 정말 좋아한다. 가을이 정말 좋은 계절이다.

심사평: 가을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이 무난하고, 그 중에서도 가을에 있는 휴일과 축제들을
일일이 언급한 것에 대한 성실한 구체성을 높이 사고 싶다. (강남옥 작가)

[중급 - 동상] 신예린 "가을" (9 학년/돌고래반)

쉬연한 바람, 따뜻한 목도리, 색깔 많은 잎파리.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당신의 제일 좋은 계절은 무엇이었나요? 그 질문을 저한테 물어봤으면, "가을" 하고 대답했거예요.
저는 왜 가을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추운 날씨랑, 잔디에 잎파리가 베풀려 내려오고, 노대채 왜 좋아하나요?

이런 상사 해봐요: 가을 날에, 밖에서 걸어가요. 걷다가, 쉬연한 바람이 지나가요. 바람이 지나가다가,
머리도 살짝 브리요. 따뜻한 목도리 와 가벼운 점바 하나 입고, 바람을 피리키는 잎파리를 팔아가요.

이런 상사 하다가 어떤 느낌을 느꼈어요? 다음에 따듯하고, 자유롭게 놀고, 참 좋은 계절의 느낌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가을을 좋은 계절로. 저는 미술, 어린 여자예요. 저한테 제일 좋은 느낌을
자유롭게, 재미있게, 평화롭게 보내는게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은, 속여서 싫다, 바람이 부려서 싫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을이 싫어한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여기유 (대)에 좋아요. 가을은 "시작" 이라고 부를수있어요. 겨울의 시작, 학교 시작, 친구들 이랑 같이 있는
시작, 무언가는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예요. 참 아름다운, 자유롭게 있을수있는 "시작", 가을.

심사평: 가을은 겨울의 시작, 학교의 시작,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의 시작, 이라는 식으로, 가을은
자신에게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는 나름대로의 가을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점이 특이하다. (강남옥 작가)

[중급 - 동상] 김민진 "가족" (9 학년/돌고래반)

여러분, 가족 있으세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매일 일하는 아버지가 있으세요? 아니면 열심히 밥을 챙기는 엄마 있으세요? 저는 그런 엄마와 아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가족은 세상에 제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외나하면 다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어떤 날도 같이 울 수 있었고 사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나쁜 순간에 뒤흔들었어요. 저의 언니들도 너무 좋아요.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장년에 제일 처음으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아프리카에 고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어린 아이에 옷과 밥도 잘 못 먹어요. 제가 고아 이었다면 상상도 못해요. 그때부터 저의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세 노력 해 보았어요. 이번 여름에 바닷가를 갔을 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처음으로 언니들과 많이 사귀었고 다 함께 스트레스 풀었어요. 가족이란 것은 저에게 정말 재미있는 삶의 놀이입니다!

심사평: 글의 시작을 질문형으로 시작하고 있다. 글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도발의 형태이며, 이 도발이 신선하다. (강남옥 작가)

[중급 - 동상] 이예나 "최고의 가족" (5 학년/코끼리반)

나의 가족은 5명입니다. 5명에 갈아지도 못함 됐어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나, 그리고 동생이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최고의 가족이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 동생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려고
노력해요. 동생과 저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요.
언제든지 동생과 저는 껌처럼 붙어있어요 우리는 서로 서로를
챙겨요. 힘든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 도와요. 여행도 많이
갔어요. 이탈리아도 가고 홍콩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한국도 갔어요.
어디든 가도 좋은 경험을 거저했던 것 같아요.

때때로는 자장나고 소리를 질르지만 언제든지
행복하고 최고의 가족이 될거예요.

심사평: 동생과 나는 '껌처럼 붙어있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껌처럼 붙어있는 가족애를 한국학교 학생다운
능력과 시각으로 잘 표현했다. (강남옥 작가)

[중급 - 동상] 이서연 "가족" (7 학년/사자반)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친구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엄마하고 아빠 만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할아버지 한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가족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예요? 사랑이 가족을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동료는 가족처럼 친해요. 할머니 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집에 가면 진짜 할머니 처럼 착하고, 음식도 사랑하요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되고 싶으면, 사랑을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야돼요.

심사평: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쓴 가족에 대한 글이 무난하고 따뜻하다.

(강남옥 작가)

(업데이트 버전)

사랑 하고 가족

가족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수있어요. 어떤사람들은 친구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엄마 하고 아빠 만이에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알고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은 피가 섞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가족을 만들까요? 저는 사랑이 더중요 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라서, 사랑해요. 엄마의 옛날 직장 동료중에서 저희랑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이있어요. 저는 할머니 집에 가면는 진짜 할머니 처럼 사랑을 저희한테 반겨주시고, 음식도 사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그분을 저희의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을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사랑으로 살고싶으면, 사랑을 진심으로 주어야되요.

[중급 - 동상] 심영서 "가을" (7 학년/사자반)

가을. 쓸쓸 하지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뭇잎은 색깔이 변합니다.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축축해져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저한테 되게 예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비오면 어린이들이 나와서 비안에서 놀고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소리 질르고 웃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가을은 즐거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밖에있는 나무들이 너무 예뻐서 그걸 보고 감동을 안 느끼실까 없습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슬픈 수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어트리면서 슬슬 겨울이 오는데 느껴집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추어지면서 짝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있을때 가을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심사평: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비 안에서 논다, 라는 표현이 재미있다. 비를 맞으면서도 논다, 라는 말이지 싶다. 한국학교 학생 수준에서 잘 표현한 글이다. (강남옥 작가)

(업데이트 버전)

가을 - 심영서

가을,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고 나뭇잎은 색깔이 변합니다.

물론, 가을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와서 축축해져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지도 덥지도 않은 가을은 저에게 완벽한 계절입니다.

가을은 저한테 참 예쁘고 행복한 계절입니다.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비속에서 놀며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소리지르고 웃습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좋은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밖에 있는 예쁜 낙엽들을 보면, 예전에 같이 즐겁게 놀았던 친구가 생각납니다.

이런 가을은 아름답지만 친구가 그리워져서 슬프기도 합니다.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슬슬 겨울이 오는데 느껴집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날은 점점 추워지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있을때 가을을 싫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중급 - 동상] 이루리 "가을" (8 학년/돌고래반)

제대생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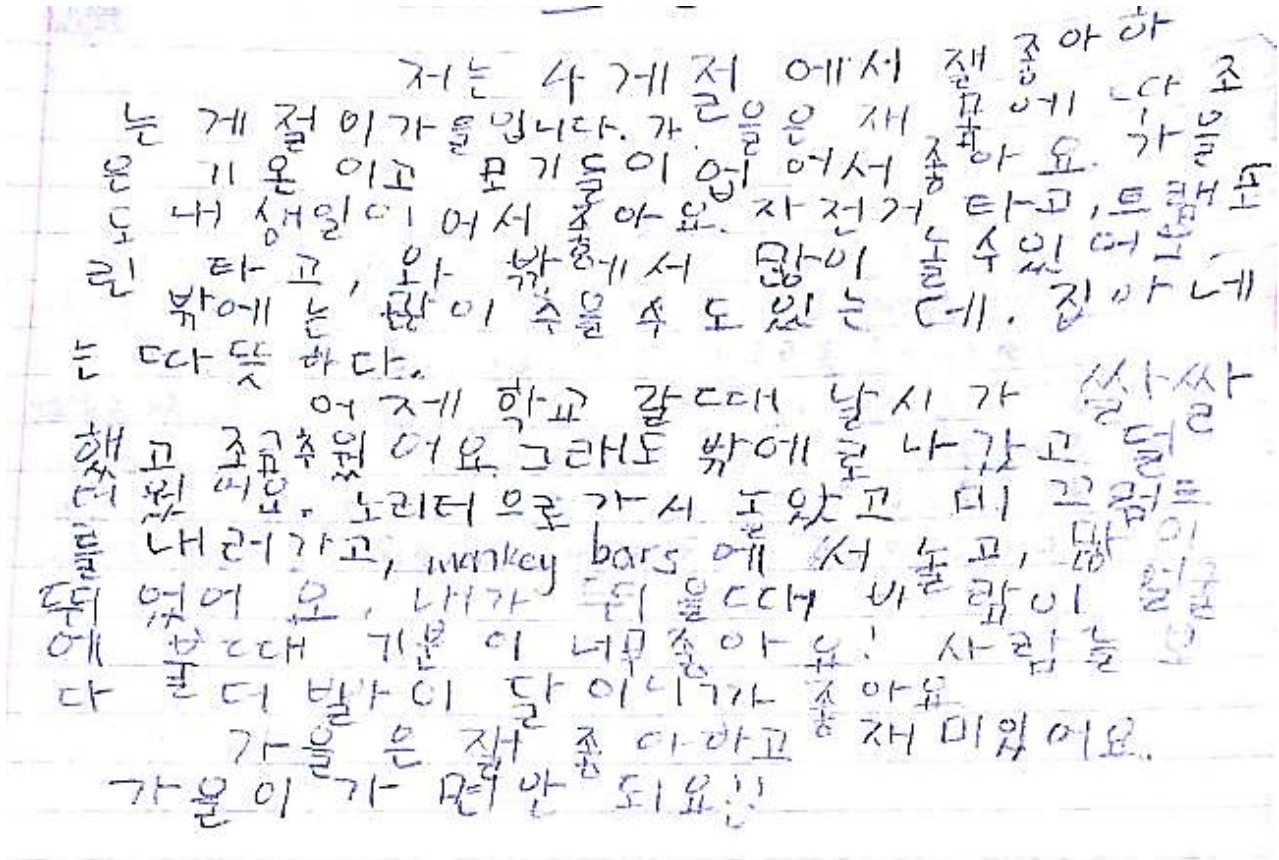
가을이 좋아요? 안이면 싫어요? ~~왜냐~~ 가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왜냐 하면, 잎파리가 빨간, 주황, 오렌지색으로 변해서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 바람도 북면서, 모든게 너무 다채로운 색깔로 변해요. 이제 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싫어한곳은, 학교준비 해야해서 입니다. 매일, 매일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제민태는 너무 어려워요. 이

학교가에서 만는것은 배워도, 제가 생각하기는 속재 끝 너무 ~~많이~~ 많이 조요.
 그리고, 제가 사는 학교가 대개 거리하고, 가을에 특히, ~~생각~~ 생각 많은
 학생이있어요. 나는 학교가 가을에 시작해야한 것이 너무
 성가신다고 생각해요. 또한, 속재 끝 늦게까지 해야해서 싫어요.
 나 만태는, 가을은 학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는 정말로
 학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생각하기는, 가을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을이 싫어요.

심사평: 가을 (보다는 학교가 개학을 해서)을 싫어한다고 솔직하게 쓴 글이다. 솔직한 글이 좋은 글이다. 가을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싫다고도 했다. 대부분 가을의 좋은 점을 쓴 글이 많은 데 비해 싫은 점을 썼다. 그러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절이어서 싫다는 표현은 생각하기 싫어하는 세태를 나타내는 듯 하다. 솔직한 표현을 높이 산다. (강남옥 작가)

[초급 - 금상] 강서연 "가을" (4 학년/코끼리반)



저는 사계절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가을은 제 몸에 딱 좋은 기온이고 모기들이 없어서 좋아요.

자전거도 타고 트럼폴린도 타고 밖에서 많이 놀아요.

밖은 많이 추울수도 있는데 집안은 따뜻해요.

어제 학교에 갈때는 날씨가 쌀쌀했고 조금 추웠어요.

그래도 밖으로 나갔고 덜 더웠어요.

놀이터로 가서 놀았고 미끄럼틀도 내려가고 명키바에서도 놀고

많이 뛰었어요. 내가뛔때 바람이 얼굴에 불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달리니까 좋아요.

가을이 제일 좋고 재미있어요.

가을아 가면 안돼! :-)

[초급 - 은상] 임시아 "가을" (3 학년/강아지반)

가을이 오면, 나는 언제나 나는 생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생일에는 선물도 많이 받고, ~~재미있는~~ 생일 파티도 해서
재미있 ~~습니다~~. 재미습니다. 가을에는 ~~보통~~ ~~가을~~
나뭇잎도 색깔이 바뀌어서 예쁩니다. 가을에는 더
쌀쌀하고 추워서 옷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나뭇
잎에 더는 걸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죽물덴 밖에
못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초급 - 동상] 박지나 "가족" (4 학년/강아지반)

내 가족은 언니, 아빠, 동생 다 같이
살아요. 우리 가족은 도와주고
사랑해요. 그런대 우리는 싸우
고 화가 나는대 우리는 가족애요.
나는 가족 사랑하고 존아해요.
나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조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가족이 없어요.

2017-2018 대외 대회 수상 내역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말하기대회: 김희진 - 전국 대상



<https://goo.gl/CKVGYY>

NAKS,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훌륭한 학자를 꿈꾸며"

by 김현경 posted Aug 15, 2017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 이승민)가 주최하는 제 35 회 학술대회와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지난 12 일에는 '나의 꿈 말하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미주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는 자리였습니다.

<김현경 기자>

'나의 꿈 말하기 대회'는 2005 년 제 23 회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각 지역협의회를 통해 예선을 거친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와 올해 13 회를 맞이했습니다.

대회는 우리 2 세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으로 한국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발표하고, 미래를 펼쳐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펼쳐질 대회를 위해 각 지역의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학생들이 저마다 소중한 꿈을 발표하며, 청중 모두에게 한글 교육을 통한 정체성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대회는 동남부지역 외 5 개의 지역협의회로부터 선발된 학생들이

출전했는데, 동중부 지역협의회 소속 10 학년인 김희진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희진 학생은 "학생들이여 행복하자 훌륭한 학자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여름방학 때 한국을 방문했다가 꿈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 양은 미국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학생 언니는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친척오빠도 한달에 세번 이상 볼 수가 없어 왜 저렇게 살면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 교육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갖게 되는 김 양의 꿈은 학자가 돼 한국과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 수상 결과로 나의 꿈 홍보대사는 김희진 (학생들이여 행복하자! 훌륭한 학자를 꿈꾸며)
학생이 뽑혔습니다. 홍보대사는 1 년간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홍보하고 국내외 행사에 학생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일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지게 됩니다.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신지은 – 금상 “사랑이란?”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각각 다 다릅니다. 제게 사랑은요..사람입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이 못 했었습니다. 뭐 사랑은 그냥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엄마이겠지...그것뿐이 었습니다. 전애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보니까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랑은 엄마뿐 만이 아니라 사람이었더라고요. 엄마,아빠, 작은 오빠, 큰오빠, 우리의 가족, 항상 날 위해 언제나 있어 주는 친구, 등등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전 친구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하루빨리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는 친구가 없으면 오늘의 신지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면 제 친한 친구들이 바퀴입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저는친구들이 없으면 외로운 인생을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교회 “Retreat”를 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했을때 울음이 터졌어요. 그때 저를 더 울게만든 게 바로 친구예요. 제 등을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날 위해서 울다니” 그때, 기쁨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우리 가족. 그렇지요, 난 당연히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난 무엇을 하면서 내 사랑을 표현하지요? 난 받은 게 많아서 줄 것도 많겠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던 제 사랑의 표현이 아주 사소한 것들만 있어요. 근데 사소한 것들이 믿음과 사랑을 만드는 겁니다. 매번 생일이나 생신 때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 엄마가 힘드실 때 같이 밥을 차리는 것, 그 아주 사소한 것들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저한테 마찬가지로요. 제 엄마는 빨리 힘드시고 피곤해 지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 위해 예쁜 옷도 사주고, 요리도 해 주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라이더를 부탁하면 좀 늦어도 맨날 합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일찍 가고 늦게 들어오십니다. 근데맨날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깁니다. 숙제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영어를 빼고는 다 도와주십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절 위해 같이 춤추고, 놀아주고, 숙제도도와주니까요. 최고의 아빠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오빠는 절 위해 걱정을 해 주는 게 너무나도 든든하고 좋습니다. 배구와 배드민턴도 가르쳐줍니다. 큰오빠도 진짜든든한 오빠입니다. 대학생인데도 집에 자주 오고, 제가 놀자면 같이 놀아줘요. 이게 다 가족의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쓴 것은 친구와 가족의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제게 사랑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배승현 – 동상 “사랑이란?”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은 행복할 수 도 있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족일 수 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처럼 가족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저는 힘들 때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나, 언제나 제 가족한테 기댁니다. 우리 가족은 제 롤 모델입니다 매일 매일 저를 힘내게 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 가족입니다. 그런 제 가족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학교에서 같이 노는 친구들도 좋고, 다른 학교에 있지만, 집에서 영상통화 하는 친구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학교에노는 친구들보다 다른 학교 친구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양인이고, 저를 제일 잘 이해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정은 정말 깊은 우정입니다. 저를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들은 기본이고, 저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저는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밖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온종일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는 일본 만화를 봅니다. 일본 만화중에서 저는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만화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만화입니다. 그 만화만 보면 갑자기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그 만화만 보면 친구들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랑은 아주 중요하고, 강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한테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도 저처럼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고, 사랑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중부협의회 백일장: 송수아 – 특별상 “사랑이란?”

사랑은 뭐니까? 엄마가 안아 줄 때요? 아빠가 뽀뽀해 줄 때요? 저한테는 엄마하고 아빠가 사랑입니다. 저를 키워주고,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을 많이느낍니다.

저는 맨날 일어나면 엄마가 “우리 예쁜 딸 밥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라고 말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가 밥이 있어도 딸이 맛있는 것을 먹고 학교에 가게 하려고 힘들게 재료를 사고, 손이 터도 계속 요리를 하면서 웃어주는 제 엄마의 모습이 뿌듯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물어보고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엄마는 제가 다칠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대신에 아파주고 싶어.” 그러면서 밴드를 붙여 줍니다. 저는 그 밴드를 보고 아픔을 참으면서 웃었죠.

우리 아빠는 사랑을 다르게 보여줍니다. 아빠는 새벽 4 시에 나가서 밤 8 시 30 분에 돌아와요. 지치고 땀나는 얼굴로 집에 들어오고 웃죠.

“안녕 내 딸!”이라면서 저를 안아줘요. 주말에는 아빠가 일을 안 가요. 그래서 토요일 한국학교에서 돌아오면 저의 아빠가 놀아주세요. 바둑도 하고, 슈 돌도 보고, 밥하고 간식도 같이 먹어요. 저는 우리 아빠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힘들어도 딸과 놀아주고, 시간이 없어도 바둑도 같이 두고, 슈 돌도 같이 봐 주잖아요! 우리 아빠는 사랑을 다르게 보여주지만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빠는 사랑이 넘쳐 나오고, 절대로 끝나지 않는 큰 통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엄마 아니면 아빠가 없는 애들이 많은데 저는 엄마와 아빠가 있을 동안 감사하고, 말 잘 듣고, 열심히 노력 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둘 다 다르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부모님 둘 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저한테 사랑을 보여주는 것 처럼 저도 부모님께 사랑을 보여 줄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10/7/17 동중부협의회 한글날행사 - 백일장



I Love Korea Speech Contest: Erika Tsai – 금상 “I Love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에 다니는 Erika Tsai 이고 한국 이름은 유리입니다. 이름 참 예쁘죠? 저는 열살 이고요, 저희 엄마는 한국 분이시고, 저희 아빠는 중국 분이십니다. 한국은 저한테 아주 아주 중요해요. 왜냐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엄마와 제가 예뻐하는 우리 강아지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아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저는 엄마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로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k-pop, 한국 무용, 드라마, 또 맛있는 한국음식들을 아주 좋아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제일 먼저 할아버지를 보고 왔습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한국문화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강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은 “럭키”입니다. 우리 가족은 버려진 강아지 “럭키”를 한국에서 입양해 왔습니다. 우리 럭키는 몸이 불편하지만,정말로 사랑스러운 강아지 입니다. 우리 럭키는, 다문화 가정인 우리가족에 정말 잘 어울리는 믹스견입니다. 한국에서 온 우리 럭키가 건강하고 행복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Love Korea Speech Contest : 올리비아 노가이 – 은상 “What I Love about Korea”

여러분, 안녕 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노가이 입니다. 저는 Bobby's run 학교 5 학년 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아빠는 미국사람이지만 저의 엄마는 한국사람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한국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할머니도 전화를 하시면 한국말로 말씀 하십니다.

제가 유치원 때 한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잘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엄마랑 할머니랑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친구들과하고도 한국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랑 텔레비전 볼 때 뽀로로, 핑크퐁도 한국말로 봅니다.

저는 한국음식을 모두 좋아하는데, 떡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설날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포크를 쓰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제가 젓가락을 사용하면 어른들이 저를 칭찬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으쓱으쓱합니다.

한글학교에서 이순신장군을 배웠습니다. 이순신장군은 바다에서 일본하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일본은 배가 많았고 한국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순신장군은 멋지게 일본을 물리쳤습니다. 저는 이순신장군을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반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롭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뿌리 찾기” 에세이: 김민진 – 장려상 “일주일일 모두 한국인으로 살게 된 나”

어릴때는 아무 생각없이 살던 저는 하이스쿨에 진학하면서 부모님께 이런 불평을 가끔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한국에 그냥 살지... 왜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나도 힘들게 공부하게 만들어?”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러게 말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며 씩씩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2 년전 우리 가족은 친할머니 댁을 방문하러 한국에 한 달동안 다녀온 이후부터 불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대한민국은 정말 이 곳이 내 모국이구나 하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와 피부색이 같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의 말투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친하게 느껴지는 분위기, 밤 늦도록 다녀도 불안하지 않는 마음, 맛있는 한국 음식들, 내 또래 친구들의 활기차고 예쁜 모습 등등 정말 좋았습니다.

그 뒤 미국에 돌아와서 한국 방문을 했던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문득 나 자신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당장 대답을 못하게 된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녀서 한국 말은 좀 자신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고 저희 부모님은 집에서절대로 영어를 못하게 하고 한국 말만 사용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나도 모르게 영어로 얘기하면 아빠는 “나는 영어 못 하니까 한국 말로 다시 해”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는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면서 일부러 저희에게 한국 말을 쓰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끼리는 부모님 몰래 영어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했습니다.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말로 얘기하고, 한국 무용도 추고, 한국 노래 즉 어릴 땐 동요, 지금은 K-pop 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이럴 때 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교를 나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저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일 주일에서 토 요일 하루만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정확한 대답도 못 하며 하루 하루를 보내다 정답을 준건 바로 어떤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9 월의 어느 토요일, 저희 한국학교에서 한국 무용단은 입양아들을 위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학교에 1 기 무용단의 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학교에는 외국인과 입양아들을 위한 반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입양아 반이 그냥 미국인 부모에 입양된 한국 아이들 이구나 하고 특별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날 저희 무용단은 성의없이 공연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우리 한국 무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인 부모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고 아이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환호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 무용단이 많은 공연을 했는데 이렇게 열광적인 박수를 받은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들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대충 했는데 격렬한 박수에 창피해서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시간에 한 미국인 부모가 “It’s great, can you teach that dance to my

daughter?”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입양아 중 Max 라는 개구장이는 boy 는 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반응에 신나서 부채춤, 검무, 반고무, 화관무 등의 춤들을 소개하며 간단한 동작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이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은 나의 모국임에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해 졌음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미국인 부모하고 살면서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리고 미국 부모들도 어떻게든 그들 자녀의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다하는데 나는 그 동안 우리 모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노력했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들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학교 가는 것, 한국말 쓰는 것을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했고 미국 학교 다니며 공부하기도 힘든데 토 요일 한국학교 가느라 빼앗기는 시간도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로 저에겐 작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상처럼 왔다 갔다하는 한국학교에 가는 마음 가짐이 나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한국학교 가기 전 날 밥먹듯 안해가던 숙제도 해 놓고 부모님이 깨우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며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무용 등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도 안치고 집중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한국학교 봉사 활동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의 변화들은 내 스스로가 한국인임이 너무도 자랑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나아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공간인 문화센터를 만들어 그 곳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화센터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한국 무용단 친구들에게 나의 계획을 말했더니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며 같이 그 꿈을 이루자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우리 무용단 8 명이 함께 이루어 낼 미래를 생각하니 정말 기쁘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열려있는 한국문화센터가 우리가 사는 주변에 있어 한국인들이 그 곳에서 한국적인 모든 활동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저처럼 나의 뿌리에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훗날 제 아이가 저한테 “엄마! 나는 한국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강서연 - 특별상



2007 년 10 월 9 일 한글날 태어난 저는 한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에 엄마가 선생님이시고 저도 3 년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한글로만 대화하고 영재발굴단도 보고 동물농장 보는것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부채춤은 너무 재미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요. 아직 한국을 한번도 안가봤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한국에 빨리 가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붓으로 한글구름을 그려서 그 구름을 타고 어서 한국에 여행가고 싶어요.

제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신호린 - 장려상



우리반 강아지반은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해내시고 거북선을 만드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예요.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채춤을 배워요. 부채를 모두 피면 꽃도 만들수 있고 나비를 만들수 있어서 신기해요. 그리고 파도를 만드는데 정말 예뻐요.

우리아빠는 태권도 선생님이에요. 아빠가 나무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모두 박수를 쳐요. 친구들이 태권도를 좋아해서 기뻐요.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이루리 – 한산상/동상 3 “불패신화는 신화가 아닌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다!

제가 5 학년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훌륭한 장군이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영화 “명량”을 보고나서 너무나 놀랍고 이순신 장군을 왜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강하고 무엇이든 잘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몸도 약하고 무과 시험에서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고 활도 잘 못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강한 정신력과 준비성 그리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32 전 32 승이라는 불패신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왜군을 물리치는 것말 생각하던 이순신은 왕의 질투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거기게 마음 상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시기가 왔을때 죽음을 각오 하고 전쟁을 준비 하였습니다. 특히 명량 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을때 원군 장군이 전쟁에서 대패해서 거북선이 12 척 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다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2 척의 배로는 이길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 와서 나라를 지키라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버리면 왜군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생각해서 바다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천한 저는 아직 살아 있고, 신에게는 12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수군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형으로 유인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수군들은 왜군들이 몰려오자 무서워서 나와서 싸우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기를 원하며 죽을 것이다.” 라며 제일 먼저 나와서 왜군들을 물리 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토록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수군들은 모두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왜군에게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군들은 용기를 내서 이순신 장군과 장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지략이 있습니다. 또한 거북선이라는 강한 배를 160 척으로도 원군 장군은 이기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12 척으로도 133 척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12 척의 배를 10 배가 넘게 많아 보이도록 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일자진이라는 방법으로 울돌목을 막고 그 뒤에는 고기잡이 배들을 띄워놓고 거북선에서 유황을 내 뿜으니 왜군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수군으로 착각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대목은 통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지만 전쟁을 나가면 몇년씩이나 부모님을 뵈 수 없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늘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저는 학교 숙제나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항상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다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가질 수 있다는게 정말 자랑스럽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함지훈 – 옥포상/동상 1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안녕하세요. 저는 9 살 미국에서 태어난 함지훈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처음 알았던 것은 2 년전쯤입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저를 위해 사오신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는 거북선이라는 멋진 배만 알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작 놀란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똑똑한 과학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옛날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거북선은 몸통이 거북이 같아서 거북선이라고 했습니다. 거북선 위에는 높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또 방패처럼 철로 뾰족한 바늘을 지붕에 만들어 왜 군이 배 위에 올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북선의 입에선 대포와 불이 나왔습니다. 용머리에서 꼭 용이 불을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 하는 일본사람들이 눈에 보 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오고 우리 거북선이 자랑스러워 신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똑똑하고 용감한 장군입니다. 13 척으로 300 척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교육비디오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은 수의 배로 그 많은 일본 배를 무찌르기 위해서 거북선과 우리나라 지형을 이 용하였습니다. 일단 일본 배를 좁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곳은 파도와 물살이 특별 한 곳이었습니다. 일본 배들이 좁은 곳에 모였을 때 거북선이 길을 막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물살이 바뀌어서 더 용감하게 왜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명량해전 입니다. 거북선도 최고이지만, 자연을 알고 이용했다는 것이 저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장군은 매우 똑똑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셋째로 놀라운 것은 장군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왜군의 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돌아가시기전 에 자기 몸을 방패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과 왜군이 장군의 죽 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슬프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지 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무서운데, 죽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진짜 우리나라 의 영웅입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참 많이도 쳐들어 왔었습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니 그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 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전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더 오래오래 살았었다면 거북선을 더욱 발전시켜 우주선같은 배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북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과학적인 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거북선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 무덤과 박물관에 가고 싶습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제 7 회 낙스/김구재단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윤도영 - 백범

평화상 “나의 속제”



역사와 오락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오락을 고른다. 역사와 수학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수학을 고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을 써보라고 하셨을 때, 역사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마틴루터킹 주니어가 미국에 준 영향력이 생각났다. 그리고, 나의 뿌리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정신적인 기초를 백범 선생님이 만드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백범 선생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인물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백범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얻고, 또한 그분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기까지는 주변에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된다. 특히 나의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은 고능선 선생님과 백범 선생님의 어머니이다.

고능선 선생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는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백범 선생님께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백범일지를 읽은 나에게도 계속 마음에 남는다. 무슨 일이든지 남들이 안하는 일을 하는 건 자연스럽게지가 않고,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영어고, 아무래도 미국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뿌리가 되는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그랬다. 더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사물놀이를 매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가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학교의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배워 이런 독후감 대회에 나가고, 한국전통문화공연을 미국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한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배워가고 자랑스러워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을 때, 백범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나는 네가 경기 감사가 된 것보다도 더 기쁘다. 당당하게 지내거라.”라고 하셨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을텐데, 오히려 기쁘시다고, 당당하게 지내라고 당부하시는 백범 선생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놀다가 한 친구를 왕따시키는 친구들이 있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같이 웃었지만, 당하는 친구가 기분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그 친구들에게 그만 하라고 했다. 그 사건이 학교에 보고되었는데, 학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왕따를 시켰다는 이유로 경고를 주었고, 다시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퇴학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냈다. 속상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에게 말해 왕따를 그만 시켰다는 것에 대해 칭찬해주시고 기뻐하셨고, 학교 교장 선생님과 상담선생님을 만나서 그 일에 대해 다시 짚어보고 내가 한 부분에 대해 잘못 보고된 것을 바로잡아주셨다.

백범 선생님의 주변환경과 나의 주변 환경이 비슷하게 느껴진다. 역사 속의 이야기가 나와 전혀 관계 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 옛날 백범 선생님이 힘들어하셨던 부당함은 오늘에도 있다.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옛날에, 자기 나라가 힘이 있다고 이웃나라의 권리를 빼앗고, 법을 바꾸면서 땅과 재산을 야금야금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면서 세력을 늘려간 일본이 있었다. 그 일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에 또 있다면 나는 백범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싸워야겠다.

일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빨리 현실에 적응하고, 일본이 만든 새로운 법을 공부하고,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는 일이 나라를 되찾는 일보다는 빠르고, 쉽고, 성공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도 백범 선생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힘들게 지켰고, 이곳 저곳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난 후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독립군이 싸워서 얻은 독립은 아니었지만, 계속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때 그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



백범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원했다. 반쪽으로 나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만든 통일 정부를 말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만약, 쉽지 않아 보여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만 열심히 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 사는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에서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쓰는 것이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통일에 대해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남북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원하셨던 완전한 독립은 남아있는 후손들이 이루어야 할 숙제이다. 어느 누구도 내 주위 친구들은 일상 생활에서 한국의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백범일지를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학교 친구들과, 가족과 통일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미국 학교 역사시간에 한국에 대한 주제가 나왔을 때 이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야겠다. 이것이 작은 변화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독립을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듯이 말이다.

제 3 회 낙스/김구재단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전: 이유정 - 백범 통일상

“Hello 김구 아저씨”

(부분 발췌)

이 교육안은 영어가 모국어인 미주한인학생들, 그 중에서도 입양동포 및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이 본 교육안을 통한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움과 동시에 백범의 자주독립정신을 이해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는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대상이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므로 백범 김 구 선생님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네 부분—1) 백범의 기본정보, 2) 백범의 명언, 3) 백범의 당부, 4) 백범의 업적—으로 선택하고 집중시켰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편하게 느낄수 있도록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백범 김 구 선생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 누구나 다루는 장황한 전기는 과감히 없애고, 다문화 가정이나 입양동포들도 접근하기 쉽게 전개했습니다.

<https://issuu.com/kssnj/docs/hellokimkoo> (교육안 수상작 보러가기)



동중부협의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서정환 – 금상 “열린 마음을 가진 따뜻한 정치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9 학년 서정환입니다.

어느날 저는 어떤 아는 분 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환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까지 저의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다른 얘기로 어영부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날 이후로 나의 꿈,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얀가운을 입은 의사가 훌륭하고 멋있어 보여 의사가 되어야지...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2 년 전부터 내 생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때는 이 땅에 범죄와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뉴스를통해서 나의 주변에 어두운 것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폭력으로도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들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당한 사건... 그 희생자 뿐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아마 평생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나, 나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다 아시죠? ISIS 라는 테러단체. 테러로 인해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희생을 당하고... 이 때문에 언젠가 TV 에서 어떤 미국 시민이 “무조건 ISIS 와 미국내에 있는 무슬림들도 다 죽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방송으로 듣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위험하고 악해지는 사회로 변하는 것 같아 심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마도 정치인 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꼭! 2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의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어 편견이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어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만이 가능 한 일이 겠죠.

둘째, 저는 무엇보다도 누구든 타인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한국학교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분은 유명한 정치인 이었습니다.

“백범” 이란 뜻은 보통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구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며 끝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저도 김구 선생님 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의견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저의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싶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세대는 반드시 폭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보시지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동중부협의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윤도영 - 은상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식 요리사”

안녕하세요? 저는 10 학년 윤도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땐 꿈 많은 소년이었습시다. 어릴 적 저는 소방관이 되는 꿈을 꾼 적도 있었습시다. 소방관들이 불과 싸워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항상 긴장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화재현장으로 달려가야 하고 순식간에 번지는 불과 싸우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피곤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꿈을 바꿨습시다. 또, 잠깐이지만 장래 희망으로 우주비행사도 생각해봤습시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우주비행사가 될 확률이 너무 낮고, 우주를 비행하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인 것 같아서 포기했습시다. 그럼 진짜 제 꿈이 뭐냐구요?

저에게는 세 살 많은 형과 한 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3 년간 형을 키우시고 귀여운 아기인 나를 낳으셨는데, 제가 태어난 지 1 년만에 저보다 더 귀여운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시다. 첫째와 셋째 중간에 낳은 저는 형처럼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동생처럼 귀여움을 독차지 하지도 못했습시다. 사람들이 말하는 둘째 신드롬이 온 것이었지요. 어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었습시다. 부모님이 형이나 동생 때문에 분주할 때 저는 맛있는 것을 찾아서 조용히 앉아서 먹고, 또 먹었습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메뉴가 무엇인지 어머님께 질문했고, 저녁을 먹고 9 시만 되면 잠을 잤습시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잤던 저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아버지보다 크게 되었고, 8 학년이 되어서는 240 파운드가 넘게 되었습시다.

어느날 무심코 땅바닥을 보았는데 나의 발이 내 배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습시다. 거울을 봤더니 나의 몸과 얼굴이 붙어있었습시다. 할머니께서는 어린 나이에 성인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습시다. 그래서 결심했습시다. 살을 한번 빼 보자! 자나 깨나 먹을 것만 생각하던 제가 6 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미 키는 컸으니 몸매 좋은 나를 상상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시다. 그렇게 2 년동안...너무 힘들었습시다. 먹는 것도 피자나 소다 대신 건강에 좋은 한식을 주로 내가 만들어 먹었습시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키도 크고 몸매도 좋은 사나이로 저는 변했습시다. 어릴때부터 먹는 것을 좋아했고, 다이어트 하면서 요리하기를 좋아하게 된 저는 커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시다. 요즘도 매일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플 때마다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보고 그



재료들로 원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짜장면, 닭볶음면, 탕수육, 양념치킨, 스파게티 등을 즐겨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제가 저희 가족들의 건강까지 책임질 정도입니다. 요즘은 아예 우리 가족들이 “도영아, 이 음식 좀 만들어 줄래?” ㅎㅎ 조금 어렵다 싶으면 유튜브의 여러 요리프로를 보며 하라는 대로 하면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점점 재미있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지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서로 가까워지지요? 이렇게 나와 남이 함께 즐거워 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요즘엔 미국 사람들에게 한식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고픈 사람들이 찾는 한식,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찾는 한식,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한식을 계속 연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양성을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힘이 있는 나라, 미국에서 매력적인 한식을 소개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 나아가 세계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식요리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중부협의회 동화구연 대회: 이예지 - 금상 “노래 잘 하는 약”

레미에게는 걱정이 하나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학교에서 노래자랑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미는 노래에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으로 갔죠?

“아줌마, 노래 잘하게 하는 약도 있어요?”

“뭐? 노래 잘하게 하는 약?”

“그런 약은 없어요? 하휴.. 내일 노래자랑에 나가야 하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

레미는 가슴이 쿵쿵 쿵쿵 뛰었어요.

“이건 노래 잘 하게 하는 귀한 약이야.”

“이 약 먹으면 정말 노래가 잘 돼요?”

“그럼!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노래를 서른 번 불러야 해.”

“서른 번씩이나요?”

“췌!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꼭 서른 번만 불러야 해. 그래야 약이 듣는 거야. 서른 번! 알았지?” 집으로 돌아온 레미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약 봉지를 펼쳤어요. 약 봉지에는 노란 알약 두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꿀꺽) 으흠~~!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말~~”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레미는 이제 노래에 자신이 생겼어요.

그 이튿날이었죠!

“자, 모두들 노래를 열심히 불렀어요.



일등을 발표하겠어요. 일등은 (두구두구) 도레미! 도레미에요!” “뭐?
도레미라고?

“그래 노래 잘 부르더라” 친구들은 웅성거렸어요.

레미는 기뻐서 약국으로 막 달려갔어요.

“아줌마! 나 일등했어요. 노란 알약 때문이에요!”

“축하한다 레미야. 그런데 그 약은 노래를 잘 하게하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란다.”

“네?” 레미는 깜짝 놀랐죠.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알겠지?”



동중부협의회 동화구연 대회 : 임시아 - 특별상 “무지개 물고기”

저 멀리 푸른 바다 속에 반짝반짝 은비늘이 빛나는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날 꼬마 물고기가 다가왔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네 반짝이 비늘을 한개만 나눠줄래?” 무지개 물고기는 “안돼. 내가 아끼는 거야”라고 화를 냈어요. 꼬마 물고기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와 놀지 않았어요.

무지개 물고기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동굴 속 문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문어할머니 아무도 저와 놀아주지 않아요.” 문어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너의 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눠주렴. 그러면 행복해질꺼야.” 무지개 물고기는 꼬마 물고기를 찾아갔어요. “꼬마 물고기야 내비늘을 하나 줄게.”

“고마워. 정말 예쁘구나.” 꼬마 물고기가 좋아하며 말했어요.

무 지개 물고기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반짝이 비늘을 나눠줬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운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행복한 마음만 생겨났어요.

“무지개 물고기야. 빨리 와서 우리랑 놀자.”

행복해진 무지개 물고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민주평통 도전 골든벨 한국 미주결선 참가 후기 - 함지우



처음 골든벨 대회에 3박 4일로 캠프를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걱정이 되었다. 평소 낮가림이 심한 편인 내가 나흘 동안 그곳 환경에 잘 적응해 어울릴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고, 대회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쟁쟁한 참가자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대회에 참가해 캠프의 일원으로서 여러 근사한 경험을 하고 나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나에게 남은 것은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 찬 좋은 기억들뿐이다. 캠프가 진행된 나흘의 시간은 내가 개인으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첫째로, 나는 한반도미래센터의 다양하고 교육적인 통일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여러 체험을 했지만, 그 중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전망대로, 무수한 사람들이 교육 목적으로도 찾는 곳이다.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내가 북한의 땅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볼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북한 땅을 망원경 너머로 보았을 때 느꼈던 가슴 벅찬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신기하고 진귀한 경험을 하며, 나는 나중에 가족들과 오두산에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또한 통일전망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통일 후 미래의 마을을 건설하고 UCC를 제작하는 등, 여러 통일 체험



오두산 전망대에서 본 북한땅

활동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그 어떤 활동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통일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 더 보고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둘째로, 타국의 다양한 또래 친구들과 지내며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저마다 다채로운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은 참 보람차고 의미 있었다. 골든벨 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제각기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모두가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이 지내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나라에 대해 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교육 환경, 문화, 음식 등 다양하고 제한 없는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도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다한 지식을 습득했다. 외국의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흥미롭고 흡족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나에게 오래도록 좋은 기억과 교육으로 남을 것 같다. 처음 우리 지역에서 예선전을 치렀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값지고 희귀한 그 경험들을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인상 깊은 경험을 하게 해 준 주최 측에 감사하며, 덧붙여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참여할 것을 다짐한다.



10/14/17 다민족 전통 예술 경연대회 은상/동상



2/3/18 Asi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ompetition 대상/총영사상



2017-2018 자원봉사상



미합중국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 강서연, 김경민(John), 김민진, 김수연, 김희진, 박시원, 박우진, 박주원, 박희원, 손성민, 신주현, 양우진, 윤도영, 윤도웅, 이루리, 이예나, 이예지, 최지성, 최지윤,

은상: 강성유, 김셋별, 김수진, 김하현, 신예린, 신호린, 임시아, 장온유, 정제이미, 정하신, 최정은, 함두원, 강지원

동상: 김경민, 김명훈, 김세훈, 김진영, 박리아, 박지나, 백준승, 서정환, 선유진, 손모아, 송수아, 신준용, 이로운, 함지우



한국학교장 자원봉사상

양예원, 오유성, 한영주, 이의준, 박유진, 박유빈, 김주환, 백주영,



9/2/17 교사 연수회 및 시상식



9/9/17 학부모 간담회



9/30/17 체험학습 – 취타대 / K-Pop Dance



9/30/17 Delaware Art Museum 추석대잔치 본교 모듬북팀 공연



10/7/17 Korean Parade in Manhattan NYC



10/14/17 모듬북 공연 (벅스카운티 한국학교 역사문화행사)



11/1/17 동계올림픽 선수단 출정식 초청공연



12/2/17 특강 – 정치참여의 중요성



Monthly Korean Culture Class



Korean Culture Class



Korean Culture Class

Learn
How to
Order
Food



Photo
wonder

Korean Culture Class
12/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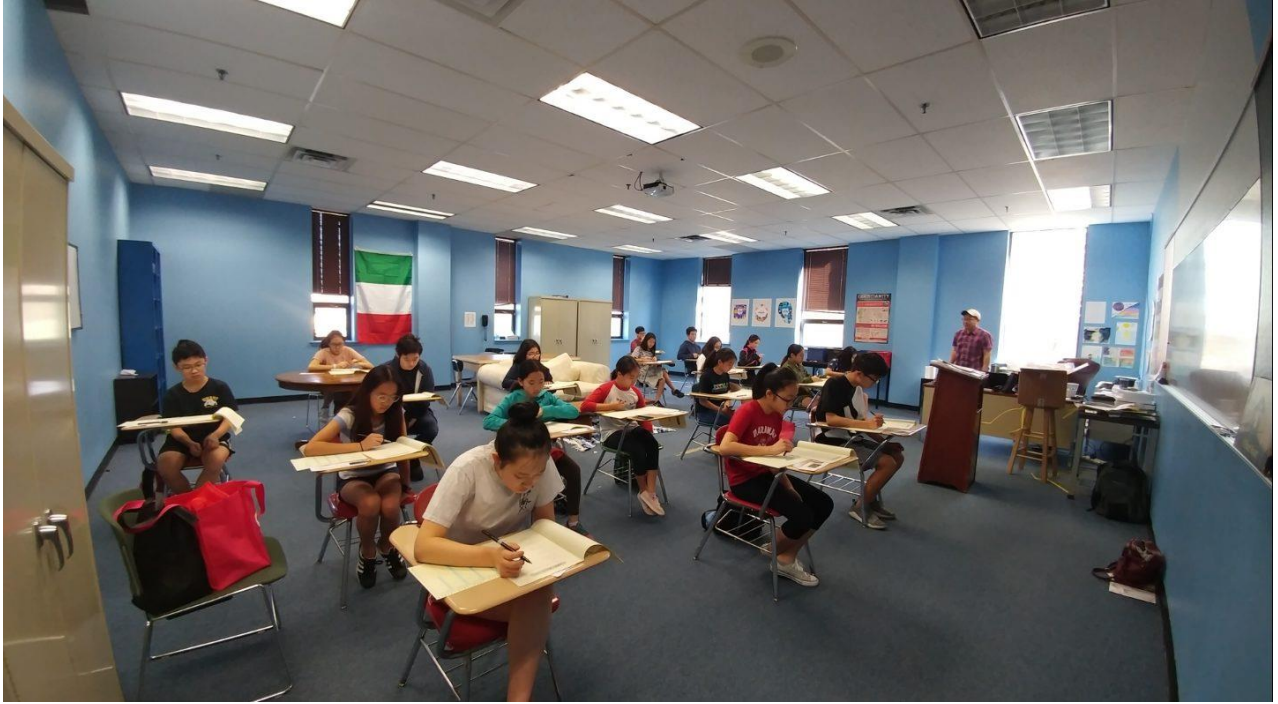
2/10/18 설날 행사



3/3/18 삼일절 행사



4/14/18 한국어 능력시험 26 명 참가



4/19/18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장원/부장원 배출

장원: 박주원; 공동 부장원: 함지우, 박희원



5/1/18 이사회



5/5/18 동요대회 - 동상/맑은소리상 수상



5/21/18 김덕수 사물놀이 워크샵



5/22/18 필라델피아국악축전 <한인의 얼> 주관



7/20/18 [낙스 학술대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및 교육안 공모전 시상식, 독서감상문쓰기 프로젝트 강의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와 김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백범일지> 교육안과 독서감상문 공모전에서 교사와 학생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했다. 이유정 교사는 13 개 학교 교사 16 명의 응모작 15 편의 심사 끝에 백범 통일상을 수상했다. 역사를 주입식으로 전달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역사 교육을 한국어 교육으로 수렴했다는 특징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윤도영 학생은 13 개 협의회, 45 개 학교의 195 명(초등부 122 명, 중고등부 73 명) 중 백범 평화상을 수상했다. '나의 숙제'라는 제목의 감상문은 자신의 학교 및 일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백범 선생의 삶과 생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설득력이 높았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7 월 20 일 시카고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NAKS 학술대회에서 열렸다. 한편, 2010 년 제 1 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전 백범상 수상자인 정안젤라 교장은 학술대회 기간 중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프로젝트 <백범일지는 여행이다>' 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단법인 김 구 재 단

백범일지는 여행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서감상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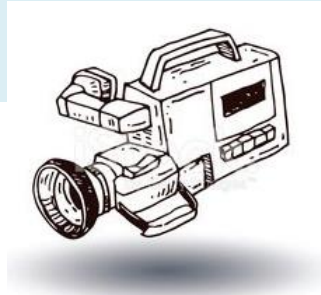
- 제 36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장
Schaumburg D
- 7월 19일(목) 오후 2:30 ~ 3:30
- 참석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문의: kkf@kimkoo.org

강사: 정안젤라

-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장 2016~현재
- 교육안 백범통일상 수상작 저자,
- 감상문 백범평화상 수상작 지도 2018
- 감상문 우수상 수상작 지도 2014
- 감상문 최우수상 수상작 지도 2011
-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수상 2010



보도자료





▲ JSI실리콘 정일남 대표(윗줄 맨 왼쪽) 후원으로 남부뉴저지통합학교 무용단이 9월 뉴저지한인회 추석대 잔치에서 삼고무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정 안젤라 교장(윗줄 맨 오른쪽)과 무용단 학생들 (사진 남부 뉴저지통합학교)



▲ 지난 10월 7일 오후 12시, 미국 맨하탄 한복판에서는 한인 사회의 최대 축제인 '2017 코리아 퍼레이드'가 개최 됐다.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취타대의 대취타 퍼레이드 공연 모습. (사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가 함께한 뉴욕취타대는 11월 1일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탈 유에스 에이 원터퍼스트'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취타대 공연 (사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강연

Posted by kace on Dec - 2 - 2017



시민참여센터(KACE)는 지난 12월 2일 토요일, 뉴저지 체리 힐에 위치한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원장 안철라 절)의 초청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센터 김동한 대표는 미주한인사회의 이민역사, '92년 LA폭동과 그 이후의 한인사회의 시민참여 활동 및 정치력 신장에 대해 2시간 가량 설명했다.

아시아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무용단 대상



▲(왼쪽)제7회 아시아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부채춤으로 대상 과 (오른쪽) 뉴욕뉴욕총영사상을 차지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무용단의 검무.

동화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제7회 아시아 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무용단이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3일 뉴저지 버겐아카데미에서 열린 이 대회는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음악과 무용을 배우고 익

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40개 팀 3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대회다. 이 대회에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 16명은 우리 가락한국문화예술원 강은주 원장이 이끄는 무용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선보이면서 대상을 차지했다. 또 이 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검무도 뉴욕 총영사상을 수상했고 이들을 지도한 강은주 원장도 지도자 안무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아시아 출신 학생들만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익힌 미국인도 참여하는 행사로 아시아인 후세들에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예술을 통

해 이해하고 배우는 계기를 만들고 아시아 문화 예술의 상호 우호 증진과 교류에 기여해 왔다. 특히 다른 한국 전통 예술경연대회와 달리 아시아라는 큰 구역 속에서 한국 무용과 국악 펼침으로써 전통 예술의 뛰어남을 미국 사회에 보여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이기 하다.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한국어능력시험 첫 실시

작성자 andnews

작성일 2018-04-16 14:23

조회 50



교내 평가 토픽으로 점진적 전환 예정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I과 II가 지난 14일 각각 응시자 18명과 10명 (재외동포 26명, 비한국계미국인 2명) 대상으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에서 시행됐다.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그 결과가 2년간 유효하다.

시험 결과는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 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한국내 면허인정, 외국인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지원 서류, 한국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등에 활용되고 있다. 남부뉴저지 지 지역에서 처음으로 토픽시험장에 선정된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정안필라 교장은 "차후 2년간 반 발로 시행하던 교내 평가를 점진적으로 토픽으로 전환하고 이를 표준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이사회로 한국학교 활성화 돕는다

남부뉴저지한국학교 이사회, 각 분야 전문인력 영입하여 역량 강화



남부뉴저지한국학교 이사회(이사장 정자량) 18명의 이사들은 5월 1일 7시에 열린 장로교회에서 이사회 강화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회의는 학교의 현황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개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사회는 학교의 법적 책임, 방향제시, 재정적 책임, 인재관리, 대사업협을 할 것에 모두 동의했고, 차후 각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학교의 발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다.

이사회 내에서 매년 \$200 이상 후원하지

만 회의에 참석하기 힘든 후원자들은 후원 이사로 구분했다. 본파위원회는 교육, 문화, 예술 및 행사, 법률, 재정 자문, 대외협력, 홍보위원회로 구성했고, 인재개발 및 총원 부문 강화가 필요한지 검토 후 차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한 역량 소지자 추가 영입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5월 22일 한국학교에서 주관하는 필리핀 피아국악축전 <한인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한국학교협의회, ‘백범일지’ 교육안 · 독서감상문 공모전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학생 · 교사 동시 수상 “쾌거”

이유정 교사 백범통일상
윤도영 학생 백범평화상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교장 정 안젤라)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와 김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백범일지’ 교육안과 독서감상문 공모전에서 교사와 학생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전에는 미 전국에서 13개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16명이 15편을 응모했는데, 심사결과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이유정 교사(교무)가 백범 통일상을 수상했다. 이유정 교사의 교육안은 역사를 주입식으로 전달하기보다 그 속에 담긴 가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 역사 교육을 한국어 교육으로 수렴했다는 특징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공모전에는 13개 협의회, 45개 학교의 195명(초등부 122명, 중고등부 73명)이 응모했는데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 윤도영 학생이 백범 평화상을 수상했다. ‘나의 숙제’라는 제목의 이 감상문은 자신의 학교 및 일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백범 선생의 삶과 생각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설득력이 높았다는 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7월 20일 시카고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NAKS 학술대회에서 실시됐다.

2011년 제1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전 백범상 수상자인 정 안젤라 교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김구재단이 공동 주최한 ‘백범일지’ 교육안과 독서감상문 공모전에서 교사와 학생 수상자를 동시에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른쪽 백범통일상을 수상한 이유정 교사, 왼쪽 백범평화상을 받은 윤도영 학생.

장은 학술대회 기간 중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프로젝트 ‘백범일지는 여행이다’ 라는 제목의 특강을 진행했다.

남부뉴저지통합한국학교는 한인 2세들의 정체성 교육을 핵심가치로 삼고,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모든 교과 과정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8일에 개강한다.

학교측은 신학년도가 개교 40주년, 통합 1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만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 문의: info@kssnj.net
http://kssnj.net

SPIRIT OF KOREA

2018 김덕수 사물놀이패 초청 필라델피아 국악축전

한인의 열

Philadelphia Korean Traditional Music & Dance Festival



Tue, MAY 22 8 PM
Tickets start from \$29
at ticketmaster.com

Annenber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3680 Walnut St, Philadelphia, PA 19104
info@kssnj.net 201.753.8563



ACT 1

오프닝 - 사물놀이



고조선 - 홍익인간 [삼고무]

한국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이기도 하다. 홍익인간은 한인의 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시대에 한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복해야 할 정신이다.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리자.



삼국시대 - 서동과 선화공주 [꽃바구니춤]



서동은 백제 산골에서 마를 캐는 사람이었다. 비록 신분은 천하지만 똑똑하고 배포가 두둑한 서동은 신라의 선화공주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에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무조건 신라로 떠났다.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 도착한 서동은 꼬마들에게 마를 나눠주고 노래 하나를 가르쳐주었다. 꼬마들은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선화공주는 서동을 밤에 몰래 만나다네”

신라 왕은 이 노래가 진짜인 줄 알고 선화공주를 내쫓아버렸다. 선화공주가 울면서 걸어가는데 서동이 나타나 선화공주를 위로해 주었다.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반해서 진짜로 결혼하게 되었다. 서동은 사실은 용의 아들이었다. 서동은 백제로 돌아가서 왕이되었다.

고려 - 삼별초 항쟁 [검무]



삼별초는 13 세기 고려 말,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였다. 1270 년 고려왕조는 40 년간 항전했던 몽골 (원나라)에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한다. 하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멈추지 않았던 용사들이었다.

“고려의 대장부가 오랑케에게 어찌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 바치겠다.”

강화도에서 진도와 제주도로 남하하며 원나라에 맞서 격전을 벌인 그들은 결국 전원 전사했지만 절대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조선 - 세종의 태평성대 [태평무]

태평성대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한다. 조선 4 대 군주 세종대왕은 언어학, 음악, 법학, 공학, 철학, 경제학, 천문학은 물론 군사적인 측면과 농업 등 당대 모든 분야를 발전시켰다. 문자가 없어 어려운 한자를 빌려 썼던 시대에, 세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남녀노소 쉽게 배울 수 있는 오늘날의 한글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양반계층이 독점하던 지식과 정보를 일반 백성이 배우고 나눌 수 있게 했다. 세종대왕은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아래 세종의 명언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내가 꿈꾸는 태평성대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의논하자.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신하들과
의논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한다"

"백성이 나를 비판한 내용이 옳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니 처벌해선 안된다"

"잘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전대의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자취를 보아야 할 것이다"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니다. 그 임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 불굴의 자주 독립 정신

[아리랑 생황연주]

유관순 열사는 여성들에게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때
현재의 이화여대, 여고의 전신인 이화학당에 재학했다.
1919 년 3 월 1 일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에 동참하고난 후
동맹휴학을 한 학생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삼일운동을
전파했다. 유관순은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 시위를
이어갔다. 이 때 일본 군경이 총검으로 유관순의 부모를
살해한 것을 눈으로 본 유관순은 피눈물을 흘리며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오빠 또한 시위 도중 잃어버렸으나 형무소에서
재회했다. 유관순이 재판장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제 나라 찾겠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해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행진 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무고한 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저리도 무참히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 무한도전 중에서

대한민국 – 기적 [부채춤]



절대빈곤에 허덕이던 나라, 국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내세울 만한 자원조차 없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60 여년이 지난 후 그 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4 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여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일까?

35 년동안 일제에 강제 점령 당했던 한국은 1945 년 광복의 감격을 맞았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 1950 년 6 월 25 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500 여만명의 인명피해를 낸 한국전쟁은 가난한 신생 독립국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 폐허 속 국가 움직임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최우선시 된 것은 다름아닌 교육이었다. 당장 오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뒷바라지 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성공하고, 성공해야 사람답게 산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후 산업개발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한국 경제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 국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를 온전히 희생했다. --

한국경제성장의비밀 KF

코리안 어메리칸 - 아름다운 나라 [꽃춤]



고국을 떠나 미국에서 정착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미국은 애초에 각 문화가 하나로 녹아 새로이 창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는 멜팅팟(Melting Pot)의 개념을 중시하다가, 1970년대 이후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여러 문화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일어나면서, 멜팅팟이 아닌 샐러드볼 사회(Salad Bowl Society), 즉 다양성을 중시하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조화를 이루되 각각의 고유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샐러드볼 사회는 소수 문화가 다수 집단에 녹아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채 함께 어우러진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깊은 역사를 통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주정신으로 미국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 진정한 아름다운 나라이다.

“저 산자락에 긴 노을지면 걸을 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빠라 골목 골목 선 담장은 달빛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흰빛이 센 바람도 재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강 물빛소리 산 낙엽소리 천지 사방이 고우니 즐겁지 않은가

바람 꽃 소리 들풀 젖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우니 맘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로 견뎌낸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맘으로 푸르다
푸르게 더 푸르게 수 만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큰 바다있고 푸른 하늘 가진 이 땅위에 사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ACT 2

오나라 & 고향의 봄 [합창]



쑥대머리 & 배 띄워라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3 악장 '놀이'



새하늘 새땅



New Heaven New Earth | 새하늘 새땅

Composed by Sung-kook Kim

KSSNJ United Choir

Soon J. Cho	Sungji Kim	Won Sook Kim	Jonah Rhee
Eun Hee Cho	Chungsook Kim	Jihyun Ku	Justin Seo
Yeon Choe	Stella Minkyung Kim	Jonghyun Kwon	Yoojin Seon
Barnabas Choi	Amanda Kim	Jinsil Lee	Eva Shim
Kenny Young Chung	Alissa Kim	Ruhri Lee	Eun H. Shin
Jung Sook Dirkes	John Kim	Andrea Lee	Eun S Shin
Mansoon Ha	Rana Kim	Miryang Lee	Audrey Shin
Jiwoo Ham	Keum Kim	Olivia Pae	Hyeree Shin
Duwon Ham	Jung Hoon Kim	Dong Hyeok Park	Il hong Shin
Sunyeop Hwang	Hoon Kim	Yumi Park	Hyunsook K Song
Kim Ok Hwang	Hyunyoung Kim	Hyejung Park	Taylor Uem
Abraham Woochoul Jun	Jinyoung Kim	Jin Sook Park	Yewon Yang
Angela Jung	Daniel Han Kim	Siwon Park	Chae Yim
Jungrang Kong	Laura Dongyeon Kim	Juwon Park	Joshua Yoon
Joelle Kong	Taiwon Kim	Heewon Park	Steven Yoon
			Allen Kiseok Yoon

KSSNJ United Children's Choir

Jinsil Lee, Director | John Kim, Accompanist

Abigail Choe	Alexander Kang	Erin Lee	Regina Smith
Angela Choe	Johanna Kang	Paul Park	Mo A. Son
Leon Choi	Allison Kang	Joshua Park	Christina Song
Remy Choi	Josephine Kim	Steven Park	Erika Tsai
Hoshine Chung	Emma Han Kim	Gina Park	Ally Yim
Jalene Chung	John Kim	Leah Park	Rooney Yim
Jade Gonzalez	Jackqueline Lee	Lauren Shin	
Daniel Ham	Yenna Lee	Emily Shin	

Philly Camerata Choir

Helen Jang, Artistic Director | Sooji Shim, Accompanist

Soprano	Alto	Tenor	Bass
Soung Soon Han	Sun Ok Bang	Young J Chae	Myung Eok Hyun
Myoung Eun Kim	Eunjung Han	Charles Han	Sunyoung Jang
Soohyun Oh	Jisun Hyun	Yang Myung Ju	Sungik Song
Jeong Mi Park	Hye Ok Kong	Michael Park	Soung Soon Han
Hyunju Yoon	Kyong Lim Park		
Solly Yoon			
Angela H. Yum			

Philly Camerata Children's Choir

Helen Jang, Artistic Director | Youngmi Soh, Accompanist

Minah Cho	Sarah Kim	Stephanie Kwon	Sharon Yun
Noel Ju	Grace Kwon	Felicia Oh	Shaline Yun
Rochel Ju	Christie Kwon	Deborah Seo	



2018-2019 학년도 등록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온라인등록: <https://goo.gl/Wd4M3C>

온라인 지급: <http://kssnj.net/Newsletters/5842>



